

K a r e l
A p p e l
& N i k i

To Start Again Like a Child
Karel Appel & Niki de Saint Phalle

새로운 출발, 아이의 눈으로
카렐 아펠 & 니키 드 생팔

d e

S a i n t
P h a l l e

OPERA GALLERY

To Start Again Like a Child
**Karel Appel
& Niki de Saint Phalle**

새로운 출발, 아이의 눈으로
카렐 아펠 & 니키 드 생팔

6 September - 7 October 2023

OPERA GALLERY

Foreword

We are thrilled to present to the remarkable art world of Karel Appel (1921-2006) and Niki de Saint Phalle (1930-2002), two influential artists who emerged during the mid-20th century and left an indelible mark on the art scene. Their practices were distinct, yet they shared certain artistic qualities and were contemporaries in the vibrant art scene of their time.

This exhibition invites you to explore the artistic journey of Karel Appel & Niki de Saint Phalle, shedding light on their unique styles, approaches, and the profound impact they had on the art world. As you immerse yourself in their works, you will witness the evolution of their artistic voices, rebellious spirits, and relentless pursuit of creative expression.

Karel Appel, the Dutch painter, sculptor, and co-founder of the influential CoBrA movement, captivated audiences with his bold, expressive style. His canvases burst with vibrant colours, thick brushstrokes, and a childlike spontaneity that exuded raw energy. Inspired by primitive and folk art, Appel fearlessly experimented with various media, ranging from painting and sculpture to ceramics and printmaking. He challenged traditional artistic conventions, infusing his work with a sense of playfulness and freedom that continues to resonate today.

Niki de Saint Phalle, the French-American artist, embarked on a journey that led her to explore monumental sculptures and delve into the theme of femininity, social issues, and the human condition. Her iconic Nanas series, with its voluptuous and brightly coloured female figures, radiates joy, strength, and liberation. Saint Phalle's sculptures, created with a diverse range of materials such as polyester, resins, and found objects, embraced whimsical and narrative elements. Her art dares to bridge the gap between art and everyday life, captivating audiences with its audacity and beauty.

While their artistic practices differed, Karel Appel & Niki de Saint Phalle shared a common spirit of experimentation, an affinity for vivid colours, and a rejection of established norms. Challenging the art world to express new possibilities, they brought a sense of playfulness and freedom into their work. Their contribution, while rooted in the mid-20th century, continues to inspire and captivate audiences to this day. This exhibition also highlights their association with the *Nouveau Réalisme* movement, which sought to blur the boundaries between art and everyday life. While not central figures in the movement, Appel and Saint Phalle embraced its spirit by incorporating ordinary objects and materials into their artworks, further challenging artistic conventions and opening new doors of creative exploration.

Opera Gallery invite you immersing yourself in the vibrant world of Karel Appel & Niki de Saint Phalle. Discover their unique styles and embrace the rebellious spirit that propelled them forward. Rediscover the limitless potential of artistic expression as you embark on this enriching exploration of their works.

Gilles Dyan
Founder and Chairman
Opera Gallery Group

Yoonju Kim
Director
Opera Gallery Seoul

서문

카렐 아펠(Karel Appel, 1921-2006)과 니키 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 1930-2002)의 놀라운 예술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두 인상적인 예술가는 20세기 중반에 등장하여 예술계에 불멸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예술적 특성을 갖추고 동시대에 활동한 예술계의 동료였습니다.

본 전시는 카렐 아펠과 니키 드 생팔의 예술적 여정을 탐험하며, 그들의 독특한 스타일과 접근법, 그리고 예술 세계에 미친 큰 영향을 조명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작품에 몰입함으로써, 그들의 예술 언어의 진화, 반항정신, 그리고 창의적 표현에 대한 강한 열망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카렐 아펠은 대담하고 표현적인 스타일로 관객들을 매혹시켰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화려한 색채, 두꺼운 붓 터치, 어린이의 순박한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원시 민속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 회화, 조각, 도자기, 인쇄 등 다양한 매체를 실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전통적인 예술 규범을 거부하고 자유로움과 재미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진정성과 자유로움을 전달하며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니키 드 생팔은 프랑스계 미국인 예술가로, 기념비적인 대형 조각 작품을 창작하며 여성성, 사회 문제, 인간의 상태에 대해 깊이 탐구하였습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조각 작품 나나(Nanas) 시리즈는 풍만하고 밝은 색의 여성 인물로써 기쁨, 힘, 해방을 상징합니다. 생팔의 조각은 폴리에스터, 레진, 일상에서 발견된 오브제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환상적이고 서사적인 요소를 담아 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예술과 일상 생활 사이의 경계를 무색하게 하며, 대담함과 아름다움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카렐 아펠과 니키 드 생팔 두 작가의 예술적 접근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실험 정신, 선명한 색채에 대한 애정, 그리고 미술의 전통적인 관습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작품에 장난스러움과 자유분방함을 포용했고, 정립된 규칙들에 도전했으며 미술적 표현의 한계를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의 활약은 오늘날까지도 독특한 영감을 주며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그들의 누보 레알리스트(Nouveaux Réalistes) 운동과의 관련성에도 주목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예술과 일상 생활을 융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렐 아펠과 니키 드 생팔은 일상적인 사물과 재료를 작품에 통합함으로써 예술 규범에 도전하고 창의적인 탐구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페라 갤러리는 여러분을 카렐 아펠과 니키 드 생팔의 활기찬 세계로 초대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발견하고, 동시에 그들을 전진시킨 반항적인 정신에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작품을 탐험하는 과정에서 영감을 받으며, 예술 표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질 디앙
회장 & 설립자
오페라 갤러리 그룹

김윤주
디렉터
오페라 갤러리 서울

To Start Again Like a Child

Karel Appel & Niki de Saint Phalle



Karel Appel, *Composition* (1963)

Encountering Niki de Saint Phalle and Karel Appel together is like playing a topsy-turvy version of the children’s game “Animal, vegetable, mineral.” In the playground version, a designated answerer thinks of a subject that can be categorized as animal (is it alive?), vegetable (does it grow?), and mineral (does it come from the ground, but doesn’t grow?). Questioners then get to ask yes or no questions about the mystery object. But in Opera Gallery Seoul’s exhibition, “Animal, vegetable, mineral” is turned on its head. Saint Phalle and Appel both convey objects with childlike simplicity: a cat, a woman, a chair. However, what appear to be stark categories become blurred the longer you examine them. Saint Phalle and Appel reject preconceived notions. Just as children don’t always distinguish mineral from vegetable from animal – imagine a child clutching a teddy bear, or spontaneously making friends with a tree – so too do both Niki Saint Phalle and Karel Appel use form to unlearn and break free. As Appel wrote, “You have to learn it all, then forget it and start again like a child.”

In life, Saint Phalle and Appel likely knew each other very little, if at all. Yet each found inspiration both through soaking in and rejecting the trappings of mid-twentieth-century continental culture. Though large collections of Niki de Saint Phalle and Karel Appel rarely appear in dialogue, their art speaks to each other with the mind-meld of old friends, who can pick up with ease no matter where they’ve left off. Entering the gallery, you’re struck with both artists’ love of vibrant colors and exuberant forms. Appel and Saint Phalle employ bright, almost aggressively saturated hues, with a frank and unabashed boldness that produces an immediately joyous atmosphere. Both artists also work at an oversized scale, which enhances the childlike effect of their work.

On their own, Saint Phalle and Appel both speak to similar concerns. Both were dedicated leaders of their political causes. Saint Phalle was a fierce feminist and an outspoken activist for women’s rights, who campaigned through both her art and her

니키 드 생팔과 카렐 아펠의 작품을 마주하면 마치 어린이들이 하는 "동물, 식물, 광물"이라는 게임을 뒤집어 놓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놀이는 원래 한 사람이 주제를 생각하고 동물(살아있는가?), 식물(자라는가?), 광물(땅에서 나오지만 자라지 않는가?)로 분류할 수 있는 물건을 고른 후 그 물건에 대해 예/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서 정답을 맞추는 한국의 스무고개와 비슷한 게임입니다. 그러나 오페라 갤러리 서울에서 발표되는 이 전시에서는 "동물, 식물, 광물"의 개념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생팔과 아펠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형태로 물체들을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여성, 의자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 뚜렷한 범주들은 더 자세히 관찰하면 할 수록 흐릿해 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생팔과 아펠은 사전에 형성된 고정관념을 거부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광물과 식물, 동물을 항상 세밀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것 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이 꿈 인형을 꼭 껴안거나 나무와 우연히 친구가 되는 것 처럼 니키 드 생팔과 카렐 아펠은 형태를 통해 배운 것들을 잊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배워야 하지만 그런 다음엔 그것을 잊고 어린아이처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생팔과 아펠은 일생 동안 서로를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하지만 이 둘은 20세기 중반 유럽 대륙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동시에 그 틀을 거부하며 영감을 얻었습니다. 비록 니키 드 생팔과 카렐 아펠의 방대한 컬렉션들이 자주 함께 언급되어 오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예술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마음이 통하는 듯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어디서 끝났든 손쉽게 이어지며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의 유대가 그들의 작품에서 느껴집니다. 갤러리에 들어서면 두 작가의 작품에서 생동감 넘치는 화려한 색채와 활기찬 형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펠과 생팔은 눈부시고 강렬한 색감으로 작품에 활력과 과감함을 불어넣습니다. 그들의 대담하고 솔직한 작품은 즉각적인 쾌감과 명료한 분위기를 창출합니다. 두 예술가 모두 거대한 규모의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이로 인해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놀라움과 순수함을 상기시키며, 마치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생팔과 아펠은 각자의 작품을 통해 유사한 관심사를 나타냅니다. 두 작가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생팔은 강력한 페미니스트로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예술과 정치적 행동으로 여성들의 권리와 사회적 차별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켜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않은 이들에게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 했습니다. 한편, 아펠은 단기간이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코브라(CoBrA) 운동의 창시자로서, 냉소적인 추상성을 거부하고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실험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시는 두 예술가의 미학을 서로 보완하며 이들이 공간, 가구, 인물,

새로운 출발, 아이의 눈으로

카렐 아펠과 니키 드 생팔

political actions to promote visibility for those on the margins of society. Appel, a founder of the short-lived but profoundly influential CoBrA movement, rejected sterile abstraction and emphasized spontaneous experimentation.

By putting these two complementary artists’ aesthetics together, this exhibition reveals the ways in which their attention to similar subjects – such as spaces or furniture, people, and animals – evokes both fantasy and despair. Niki de Saint Phalle and Karel Appel’s pieces bounce, with bubble-like figures, rounded silhouettes, and oversized features that create whimsy as well as terror. Childlike exuberance is hardly simplicity, and exuberance is not unbridled joy. Appel’s dark, rough textures and frequent slashes of black in paintings such as *Composition* (1963) highlight how Saint Phalle’s vibrant tones get shot through with dark undercurrents. The contrasts making the joy even more vivid, and even more poignant: as soon as we experience this excitement, we also must know its loss.

Furniture and Spaces: Creating in Public

Both Saint Phalle and Appel arrived in Paris in about 1950, a time of great upheaval but also great promise in Europe. As a reaction to the divisions between private and public art that characterized much of the artistic scene before World War II, Saint Phalle and Appel both used their art to break free from conventions and interact directly with all viewers.

In 1961, Saint Phalle joined *Nouveau Réalisme*, a movement started by the curator Pierre Restany and the painter Yves Klein that intended to bring life and art closer together. Rather than creating art in isolation and only revealing it in precious venues to a small sliver of society, the *nouveaux réalistes* brought art to the masses, exhibiting and often creating their art in public spaces. During her time with the *nouveaux réalistes* – the group disbanded in 1970 – Saint Phalle pioneered “shooting paintings,” in which she used a gun to shoot at bags of color, create splashes of color across white objects. Even after the movement had dissolved, Saint Phalle retained the *nouveau réalisme* spirit characterized by, as Pierre Restany put it, the “poetic recycling of urban, industrial and advertising reality.” The shooting paintings use violence to create explosions of joy: this act of destruction allows the artwork to blossom into life. The rounded shapes in works like *Oiseau amoureux* (c. 1988) echo the target practice motifs from these early “shooting paintings,” as do the recurring usage of vein-like patterns and drippings.

Karel Appel, too, believed that art should turn against the kinds of traditions that shackled artists and thinkers to predetermined forms, instead returning to the unfettered nature of childhood whimsy and fantasy. In 1948, the Dutch painter co-founded the CoBrA group, named for the three home cities of its founders, Copenhagen, Brussels, and Amsterdam. CoBrA emphasized explosion of color and form, and stressed

동물 등과 같은 유사한 소재에 주목함으로써 환상과 절망을 어뜨한 방식으로 자아내는지 보여줍니다. 니키 드 생팔과 카렐 아펠의 작품들은 둥글고 거품 형상과 같은 실루엣, 그리고 비례를 벗어난 크기의 특징들로 인해 환상적인 느낌과 공포를 동시에 자아냅니다. 유년기적인 열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이 열정은 무절제한 쾌락이 아닙니다. 아펠의 *Composition* (1963) 작품과 같은 어둡고 거친 질감과 화면에 나타나는 검은색 획들은 니키 드 생팔의 생생한 톤에 어두운 면면을 더합니다. 이 대조는 기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한층 더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동을 경험하는 순간, 동시에 그것의 상실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가구와 공간: 대중적 창작

니키 드 생팔과 카렐 아펠은 1950년대 중반 파리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 유럽 예술계는 큰 혼란과 동시에 막대한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예술 세계는 사적 예술과 공공 예술 사이의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팔과 아펠은 이러한 관습을 깨고, 모든 관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형태의 예술을 만들어냈습니다.

1961년, 생팔은 평론가 피에르 레스타니(Pierre Restany)와 화가 이브 클라인(Yves Klein)이 시작한 누보 레알리즘(*Nouveau Réalisme*) 운동에 합류했습니다. 이 운동은 예술과 일상을 조화롭게 연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누보 레알리스트(*Nouveaux Réalistes*)들은 작품을 고립된 장소에서만 창작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창작하였습니다. 누보 레알리즘(*Nouveau Réalisme*)은 1970년에 해체되었지만, 생팔은 여전히 "도시적, 산업적, 광고적 현실의 시적 재활용"이라는 누보 레알리즘(*Nouveau Réalisme*) 정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격 회화” 시리즈는 폭발적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파괴적인 행위를 통해 작품들은 생생하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Oiseau amoureux* (c. 1988)와 같은 작품에서는 "사격 회화"에서 영감을 받은 원형적인 형상과 정맥 모양의 패턴, 물방울과 같은 흐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카렐 아펠 역시 예술은 예정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어린이의 즉흥적인 상상과 환상의 자유로운 본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인 그는 1948년 코브라(CoBrA) 그룹을 공동 창립했는데, 이 그룹의 이름은 창립자들의 고향인 코펜하겐, 브뤼셀, 암스테르담의 각 이니셜에서 따왔습니다. 코브라(CoBrA)는 색채와 형태의 폭발적인 표현으로 놀이와 어린이적인 자유의



Niki de Saint Phalle adding a final touch to one of her works by shooting it with a gun. Gallery Kobke, Copenhagen, Denmark. 18 September 1961 / 총을 쏘는 행위를 마지막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니키 드 생팔, Gallery Kobke, 코펜하겐, 덴마크. 1961년 9월 18일 © TopFoto / Roger-Viollet



Niki de Saint Phalle, *Back to Back Chair* (1993)

the importance of play and childlike freedom. Though CoBrA was a short-lived movement – just from 1948 to 1951- the desire to break from “detested” naturalism and sterile abstraction profoundly changed the trajectory of European painting and sculpture after World War II. Indeed, Appel’s work finds inspiration in folk art and the expressionism of painters such as Klee and Miró, using strong brush strokes and bold outlines to create an abstract style that resonated with life, rather than rejecting organic forms. Appel’s use of spontaneous picture language, a direct outgrowth of CoBrA emerges in paintings such as *People in the Fallen City* (1989), with action-packed, rapid-motion, jagged, warm-tone lines that evoke a crayon-like scribbling. The fallen city could be a cascade of crayons splayed out across the paper. But the lines also look like a scrambled subway map, re-created from the painstaking yet hasty memory of a five-year-old. Though the title puts the figures in the foreground, the form of the city itself overtakes its people.

One of the most striking ways in which we become children again in the artwork of Niki de Saint Phalle and Karel Appel is through their exuberance play with three-dimensional objects. In this exhibit, by considering these two artists side by side,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이 그룹은 1948년부터 1951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만 활동했지만, "혐오스러운" 자연주의와 무의미한 추상성에서 벗어나려는 코브라(CoBrA)의 열망은 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유럽 회화와 조각 예술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아펠은 포크 아트(Folk Art)와 클레(Klee), 미로(Miró)와 같은 화가들의 표현주의에서 영감을 받아 강렬한 붓터치와 대담한 외곽선을 사용하여 유기적인 형태를 거부하고 생동감과 공명하는 추상적인 스타일을 창출해 냈습니다. 코브라(CoBrA)의 직관적인 그림언어는 *People in the Fallen City* (1989)와 같은 작품에도 잘 드러납니다. 이 작품은 활기찬 움직임과 따뜻한 톤의 울퉁불퉁한 선들로 가득한데, 마치 크레용으로 그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넘어진 도시는 종이 위로 흩어진 크레용 선들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들은 마치 다섯 살 어린아이가 서툴게 그린 지하철 지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목은 인물들을 전면에 두었지만, 도시의 형태 자체가 그들을 압도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니키드 생팔과 카렐 아펠의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입체적인 조각 작품과 함께하는 생동감 넘치는 놀이를 통해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시에서 두 작가의 작품들을 나란히 비교하면서, 생팔의 가구 같은 조각 작품인 *Back to Back Chair* (1993)와 *La Conversation* (1991)은 두 예술가 사이에 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관람객들도 직접 이 조각들의 공간 속으로 초대함으로써 대화에 참여하게 합니다. *Back to Back Chair*의 다리는 마치 마구간의 발굽과 같은 형태를 띠며, 이는 아펠의 인물들과 동물들의 묘사와 상호작용합니다. 검은 색조는 아펠이 사용한 어둠의 감각을 떠올리며 에네펜의 정원에 나타난 뱀을 상상하게 합니다. *La Conversation*과 *Back to Back Chair* 모두 두 사람이 서로 나란히 앉도록 디자인 되었지만,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어 옆에 앉은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려면 머리를 180도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배치로 인해 이 두 작품은 대화와 친밀함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재정의합니다. 마치 고해실과 같이,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앞을 응시하며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방식은 나란히 붙어 앉은 지리적 근접성이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화보다 더욱 강렬한 심리적 연결과 친밀감을 선사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동물을 다룬 작품들

아펠과 생팔 모두 만화적으로 단순한 형태를 사용하여 동물을 묘사합니다. 아펠의 그림은 처음에는 추상적인 색상으로 먼저 보이다가, 그 안에서 다른 색상과 형태를 대조함으로써 동물들의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펠의 동물은 색상이 먼저 인식되며, 긴장과 대조를 통해 그들의 정의된 형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 입니다. 작품 *Garçon de ferme et chien volant* (1972)에서 그림 상단에 있는 보라색 형태는 강아지라고 하기 보다는 동물의 별자리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형태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고, 큰 눈과 짧은 다리가



Karel Appel, *People in the Fallen City* (1989)



Niki de Saint Phalle, *La Conversation* (1991)

pieces of Saint Phalle’s furniture-like sculptures, such as *Back to Back Chair* (1993) and *La Conversation* (1991), draw not only these two artists into dialogue with each other, but also bring the viewer into the conversation by inviting us directly into the sculpture’s space. The feet of *Back to Back Chair* are shaped like hooves, which also resonates with Appel’s depiction of both people and animals. The black hue resonates with Appel’s use of darkness, reminding us of the snake in the garden of Eden. Both *La Conversation* and *Back to Back Chair* seat two people with each other, but facing in completely opposite directions. To have a face-to-face chat with the person sitting next to you, you’d have to twist your head one hundred eighty degrees. By the way that it places people in space, these pieces of furniture redefine what it means to have a conversation with someone, or to be intimate: it’s a confession booth mode of speech, both people staring in front of themselves into space. The deepest intimacy of all might be in this parallel play, connecting in geographic nearness in a way that’s even closer than face-to-face discussion.

Animals: The Bestiary

Appel and Saint Phalle both play with and against almost cartoonishly simple forms to depict animals. Appel’s paintings at first seem to be abstract colors, then we see the animals only by contrast against the other colors and shapes. Indeed, Appel’s animals are color before creatures, the hues resolving themselves by tension and contrast into their defined shapes. In *Garçon de ferme et chien volant* (1972), the violet figure in the upper half of the painting looks more like a constellation approximation of an animal rather than an immediately recognizable dog. The figure’s proportions don’t align, with an outsized eye and stubby legs. Appel’s dog is a dream creature, the kind a child might draw from memory: you see a dog associatively rather than intuitively in these colors, as you might see a creature in a Rorschach ink blob. But once you see the flying dog, you can’t un-see it: the electric violet clicks from amorphous blob to an unquestionably canine being.

In contrast, from afar, Saint Phalle’s creatures pop out as immediately, almost cartoonishly recognizable, like an alphabet version of themselves. Both *Chat (blue-violet)* (c. 1965) and *Chat* (1991) could be textbook illustrations of “C is for Cat”: one poised with tail lifted stick-straight, one curled contentedly around itself. But up close, the animals are much more complex than their cartoonish versions might imply. *Chat* (1991) has one eye connected directly to a nose, a Picasso-esque face, its nose a direct mirror opposite of its tail. The cat’s whiskers crisscross under its nose in imitation of a nineteenth-century bather’s insouciant mustache.

Animals in both Appel and Saint Phalle also subvert expectations by being quieter than we might expect. Rather than the iconic black-and-white color-blocking characteristic of orcas, Saint Phalle’s *Shamu – You Are My Killer Whale* (1997) is done in bridal colors: white, pink, gold, and one navy fin (the “something blue”). This Shamu shimmers with a milky white pearly sheen. Shamu’s body seems to glow with the same efflorescence as the



Karel Appel, *Garçon de ferme et chien volant* (1972)

특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강아지로 먼저 알아보기 보다는, 동물의 별자리와 유사한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아펠의 강아지는 마치 아이가 기억 속에서 그린 꿈 같은 존재로서, 우리는 색상들 속에서는 이 형태를 직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연상적으로 보게 됩니다. 마치 개인의 상상력에 의해 연상되는 로르샤흐(Rorschach) 잉크 블롭 속 이미지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날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면, 이후로는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선명한 보라색이 무형의 덩어리에서 분명한 강아지의 형상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생팔의 동물들은 멀리서 볼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화적으로 표현된 알파벳 이미지처럼 눈에 띕니다. *Chat (blue-violet)* (c. 1965)와 *Chat* (1991) 모두 마치 "C는 고양이(C is for Cat)" 알파벳 교과서의 일러스트 같이 보입니다. 하나는 꼬리를 곧게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몸을 기분 좋게 말아 앉은 자세 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관찰하면, 이 동물들은 단순한 모습을 넘어서 더욱 복잡하고 섬세하게 표현된 것을 알게 됩니다. *Chat* (1991)은 눈 하나가 코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피카소 풍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코는 꼬리와 정반대로 대칭되어 있습니다. 마치 19세기 목욕하는 사람들의 콧수염과 비슷한 수염이 고양이의 코 아래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아펠과 생팔의 작품에서 동물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조용하고 차분한 형태로 나타나며 우리의 예상을 뒤집습니다. 범고래를 상징하는 흑백 색상 대신, 생팔의 *Shamu - You Are My Killer Whale* (1997)은 결혼을 상징하는 하얀색, 분홍색, 금색, 그리고 어두운 파랑 지느러미로 꾸며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범고래를 뜻하는 샤무(Shamu)는 흰 진주 빛을 띠고 있으며, 그녀의 몸은 보티첼리의 비너스가 태어난 조개껍질처럼 꽃이 피어나는 듯한 빛을 내뿜습니다. 그녀의 옆구리는 섬세한 레이스 모양의 검은 덩굴로 뒤덮여 있는데, 마치 동화 “잭과 콩나무”의 마법의 콩나무가 고래의 매끄러운 몸을 따라 퍼져 나가는



Niki de Saint Phalle, *Chat* (1991)



Niki de Saint Phalle, *Shamu – You Are My Killer Whale (Remembering)* (1997)

shell from which Botticelli’s Venus rises. Her flank is interlaced with delicate, lacy black tendrils, as though a magic beanstalk is spreading across the whale’s smooth flank, sprouting kidney-shaped cells in magenta and metallic gold that glow like gems. Shamu’s round eye is framed in an almond outline, the shape of a bud perpetually just about to flower, and it stares directly at the viewer. It’s not a *La Gioconda* eye, following you wherever you stand in respect to the creature. Rather, you’re magnetically compelled to Shamu’s eye, and you find yourself shifting your perspective to stare into the glow of the killer whale. We may have captured the whale from the wild, yet we’re the ones captive to this Shamu’s captivating gaze. But as demure as this creature seems from afar, Shamu is hardly the fragile being she might appear. The neural network of tendrils also resembles a net used to ensnare whales from the wild. *Shamu* both evokes the original Shamu, who died in 1971, and the many subsequent whales named “Shamu” who were forced to perform for spectators at Sea World and other aquariums. Shamu might be a killer whale – indeed, she might be seen as just one of an interchangeable string of killer whales, trained to perform for the masses – but we must also remember her as an individual soul.

Like Shamu’s round eye that stares directly at us, many of Appel’s animals have overly large eyes that compel us to meet their gaze. Appel’s *Blue Bird* (1971) has an eye that pops out in pastel yellow, a direct contrast from the blue of the bird’s head and the landscape’s red background. But *Blue bird* actually has three eyes: patterns across the painting mimic pupils, rejecting the simple notion of one animal and creating a flock. Appel’s use of these childishly simple primary colors also rejects reality. This bird’s hue is monochrome, flat against the canvas. The relentless saturation of the paint color, and the entire composition’s lack of shadows, makes the bird seem paradoxically less naturalistic. The bluebird’s blue, its seemingly defining characteristic, becomes a fantasy hue.

People: Living in Space

Saint Phalle and Appel both depict people in lush, vibrant tones that draw on traditions from around the globe – African and pre-Columbian traditions, for example – as well as the influences of street culture, graffiti, and urban life. Saint Phalle’s iconic “Nanas”, with their jubilant breasts, bottoms, hair, and



Karel Appel, *Blue Bird* (1971)

뚝하고, 자홍색과 금색으로 빛나는 콩알 모양의 세포들이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사무의 둥근 눈은 마치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꽃봉오리와 같은 아몬드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관중을 곧장 응시합니다. 이는 *모나리자*(La Gioconda)의 눈처럼 관람객이 어느 위치에 서든 항상 따라다니는 눈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의 눈에 자석처럼 끌리게 되며, 관객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이 고래의 눈빛에 맞추며 응시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이 범고래를 야생에서 포획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사무의 매혹적인 눈빛에 사로잡힌 포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아함에 가려진 사무는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인한 존재입니다. 그녀의 몸을 뒤덮고 있는 덩굴과 같은 신경망은 야생에서 고래를 포획하는 데 사용되는 그물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 사무는 1971년에 사망한 최초의 사무를 떠올리게 하며, 이후 씨월드(Sea World)와 다른 수족관에서 관중들을 위해 공연을 강요 받은 수 많은 다른 "사무"들도 떠올리게 합니다. 사무는 킬러 고래가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대중들을 위해 훈련되어 일렬로 놓여진 다른 많은 사무들 중 하나로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녀를 개별적인 존재로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의 둥근 눈이 우리를 직시하는 것처럼, 아펠의 많은 동물들은 너무 큰 눈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아펠의 작품 *Blue Bird* (1971)는 파스텔 노랑색으로 돌출된 눈을 가지고 있으며, 새의 머리와 배경의 빨간색이 대비를 이룹니다. 그러나 블루 버드는 사실 세 개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 전체에 흩어진 무늬들이 눈동자를 닮아 있어 한 마리의 동물을 넘어 무리를 형성합니다. 또한 아펠은 이러한 아이들이 그리는 듯한 매우 단순한 원색을 사용함으로써 현실성을 거부합니다. 단색조로 이루어진 새의 표현은 캔버스에 단조롭게 나타납니다. 그림 전체에 사용된 진한 색상과 그림자의 부재로 인해, 이 새는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로 인해 블루 버드의 파란색은 보통의 특징이었던 색상에서 벗어나 환상적인 색조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생팔과 아펠은 여러 전통과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사람들을 생생하고 화려한 톤으로 묘사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콜롬버스 시대 이전의 전통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스트리트 문화, 그래피티와 같은 도시 문화(Urban life)의 영향도 담고 있습니다. 생팔의 상징적인 작품 "나나(Nana)"시리즈는 여성성의 다양한 측면을 유쾌함 넘치는 가슴, 윤기 있는 엉덩이, 화려한 머리카락, 그리고 우아한 곡선으로 기념하듯 표현합니다. 이렇게 작품에 드러난 여성이 가진 다양한 측면은 종종 사회적인 수치심이나 지나친 성적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작가는 그러한 관점을 전환시켜 오히려 여성성이라는 아름다움을 경축하고 존중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I Am Upside Down, Green (Remembering)* (1997)은 기존의 여성성에 대한 개념을 뒤집어 놓은 작품으로, 그녀의 녹색 피부와 비대칭적인 가슴은 우리에게 놀라운 시각적 충격을 안겨줍니다. 이 작품은 마치 키스 해링(Keith Haring)의 그래피티 캐릭터가 입체화 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며, 두 팔로 물구나무를 선 모습은 자유로움과 기존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념을

curves, celebrate aspects of womanhood that can often become objects of shame or oversexualization. *I Am Upside Down, Green (Remembering)* (1997) flips the script on traditional female roles. Her skin is green, her breasts are asymmetrical. She looks like a Keith Haring graffiti figure in three dimensions, mid-cartwheel: she’s inviting you to celebrate, and to flip all received notions of beauty. Appel’s characters invite the viewer in with oversized forms, vivid color play. *Personnages* (1970) could be a trio of Saint Phalle’s Nanas, dancing together against a playfully orange sky. Their features are bulbous and amorphous, as though a child had drawn them, with stubby legs and mushroom-knobby heads. Is that appendage sticking out of the chest area a breast or an arm? Are they standing on one foot, or three?

Appel’s people are often darker, and less distinctly human, than the joyous Nanas. The creature in paintings such as *Sans titre* (c. 1980) has deep eyes that bore directly at us, but without pupils, so we could be staring at a death mask. But Appel’s creature is more omen than ominous, a reminder that mortality isn’t a threat but a fact, and that the dead can be even more present and vivid than the living. The cane in its hand and the pronounced arch in its back make this creature resemble Quasimodo. If you came across this guide, with its birdlike nose and blunt feet, leading you through the underworld, you’d be wary but grateful: the eyes stare into your soul, but they also recognize you, compelling you to follow their lead. Yet even Appel’s brushes with death resound with spontaneity, reminding the viewer that death can also be joyful.

Indeed, when we enter Saint Phalle’s and Appel’s playground, we, the viewers, become the size of children in comparison to the art. The art itself is larger than life, and we become, relatively speaking, so much smaller versions of ourselves. But the beauty of getting re-scaled as children in terms of physical scale is that our imaginations also become larger. When we become the size of children, we also see the world through new eyes.

Adrienne Raphel, Poet and Critic, Paris, 2023



Niki de Saint Phalle, *I Am Upside Down, Green (Remembering)* (1997)

거스르는 용기를 상징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펠의 작품은 거대한 형태와 생생한 색상으로 시선을 유도합니다. *Personnages* (1970)는 마치 즐거운 오렌지 빛 하늘 아래 춤추는 세 명의 살아있는 나나(Nana)들 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형상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듯 비정형의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몽툰한 다리와 버섯모양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 한가운데 튀어나온 부분은 가슴인지 팔인지 도대체 무엇을 그린 것인지 궁금해 집니다. 그들은 한발로 서있는 걸까요, 아니면 세발로 서있는 걸까요?

아펠의 인물은 종종 생팔의 나나(Nana)와는 달리 어두운 느낌을 풍기며, 인간적인 특징이 덜 부각된 추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Sans titre* (c. 1980)와 같은 그림 속의 존재는 깊고 투명한 눈으로 우리를 직시하지만, 눈동자가 없어 마치 죽음의 가면을 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아펠이 만들어낸 이 존재들은 죽음과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섭지만은 않으며, 오히려 죽음도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죽음은 위협이 아닌 자연스러운 사실임을 암시하고,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더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와 등을 등글게 굽힌 흉측한 모습은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의 주인공 콰지모도(Quasimodo)를 떠올리게 합니다. 비뚤어진 등과 새 같은 코를 가진 이 존재는 우리를 지하세계로 안내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자와 마주친다면 우리는 경계심을 느끼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낄 것입니다. 그의 눈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우리를 알아보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아펠에게 있어 죽음은 항상 자유롭고 자발적인 느낌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 또한 때로는 기쁨으로 느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작가는 우리에게 죽음을 삶과 함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기는 관점을 표현하며, 이로 인해 새로운 관점과 감정을 체험 하도록 유도 합니다.

생팔과 아펠의 작품이 펼쳐진 전시장, 이 놀이터에 들어선 우리는 그들의 대형 작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작아지지만, 아이의 눈높이로 돌아간 우리의 상상력과 시각은 더욱 확장되며, 새로운 눈으로 작품들을 감상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드리엔 라펠(Adrienne Raphel), 시인 및 비평가, 파리, 2023



Karel Appel, *Personnages* (1970)

“Through play, we renew
contact with childhood –
My art is childlike.”

"놀이를 통해 우리는
어린 시절의 감성을
마주합니다 -
나의 예술은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을 담고
있습니다."

Karel Appel at his exhibition at
The Hague municipal museum,
1982 / 헤이그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에서 카렐 아펠, 1982년
© Nationaal Archive, CCO /
Marcel Antonisse / Anefo

p 12 - 75

Karel Appel

p 76 - 153

Niki de Saint Phalle

Chronology

The early years: Appel’s youth 1921-1930s

Christiaan Karel Appel, known as Karel Appel, was born in Amsterdam on **April 25, 1921**. He was the second of four sons born to Jan Appel and his wife Jo (born Chevalier, descended from a French Huguenot family). His father ran a barber shop where Appel worked as an apprentice during his youth.

From a young age, Appel showed an interest in painting and received valuable artistic instructions from his painter uncle, Karel Chevalier. After realizing that he has imparted all his knowledge to his nephew, Chevalier took Appel to his own instructor, Jozef Verheijen, who taught the teenager his craft.

Navigating turbulent times: Appel’s artistic growth amidst World War II and influences 1940s

In **1941**, Karel Appel attempted to enroll in the Royal Academy of Fine Arts in Amsterdam to become an artist and avoid forced labour in Nazi Germany.

Appel gained admission to the Rijksakademie upon his second try in **June 1942**, and befriended Guillaume Cornelis van Beverloo, better known as Corneille.

In **1946**, Appel spent a few months in Brussels with Corneille where they met Marc Mendelson and Louis Van Lint, members of La Jeune Peinture Belge (Young Belgian Painters). He had his first solo exhibition at Het Beerenhuis in Groningen followed by a group show of young painters at the Stedelijk Museum Amsterdam.

In **1947**, he visited Paris and discovered the captivating art of Jean Dubuffet. The Paris art scen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his creative development, setting the stage for his future accomplishments. Back in Amsterdam Appel discovered the work of Dutch artist Constant Anton Nieuwenhuys, better known as Constant.

In **March 1948**, the exhibition Amsterdamse schilders van nu (Amsterdam Painters of Today) was held at the Stedelijk Museum Amsterdam, featuring works by Appel, Corneille, and Jan Nieuwenhuys (Constant’s brother). That very same year, Willem Sandberg bought Matrozenmeisje (Sailor’s Girl, 1946) for the Stedelijk Museum Amsterdam becoming the first of Appel’s artwork to enter a museum collection.

카렐 아펠 - 연보

유년기: 아펠의 어린시절 1921-1930년대

카렐 아펠 Karel Appel, 본명 크리스티안 카렐 아펠 Christiaan Karel Appel은 **1921년 4월 25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아버지 얀 아펠 Jan Appel 과 어머니 조 Jo (프랑스 위그노 Huguenot 가문의 후손인 슈발리에 Chevalier출신)의 네 명의 아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관심을 보였던 아펠은 화가인 삼촌 카렐 슈발리에 Karel Chevalier로부터 미술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슈발리에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을 아펠에게 전했으며, 후에는 자신의 스승인 요제프 베르헤이젠 Jozef Verheijen을 찾아가 아펠이 보다 넓고 다양한 예술을 만나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격동의 시기: 제2차 세계 대전과 아펠의 예술적 진보 1940년대

1941년 아펠은 독일 나치의 강제노동을 피하고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왕립예술학교 Royal Academy of Fine Arts에 입학하고자 하였다.

1942년 6월 두 번의 도전 끝에 뤼크사 아카데미 Rijksakademie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아펠은 그 곳에서 코르네유 Corneille라는 이름으로 더욱 익숙한 기욤 코르넬리스 반 베벌루 Guillaume Cornelis van Beverloo를 만나 친구가 되었다.

1946년 브뤼셀에 머물던 아펠과 코르네유는 벨기에의 젊은 화가 그룹 La Jeune Peinture Belge의 구성원인 마크 멘델슨 Marc Mendelson과 루이 반 린트 Louis Van Lint를 만났다. 이후 아펠은 도시 호로닝언에 위치한 헛비렌후이스 Het Beerenhuis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으며 이어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Stedelijk Museum Amsterdam에서 열린 신진작가를 위한 단체전에도 참여하였다.

1947년 아펠은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으로 장 뒤뷔페 Jean Dubuffet의 작품을 보게 되었다. 당시 파리의 예술은 아펠의 예술적 발전에 주춧돌이 되었으며, 훗날 아펠의 작품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아펠은 콘스탄트 Constant, 본명 콘스탄트 안톤 니우벤후이스 Constant Anton Nieuwenhuys의 작품을 접하게 된다.

1948년 3월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에서는 《암스테르담 신진작가전 Amsterdamse schilders van nu》이라는 제목의 전시를 통해 아펠과 코르네유 그리고 콘스탄트의 동생 얀 니우벤후이스 Jan Nieuwenhuys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같은 해, 빌렘 샌드버그 Willem Sandberg는 아펠의 작품 최초로 암스테르담 미술관에 소장된 《선원의 소녀 Sailor’s Girl, 1946》를 구입했다.

To Start Again Like a Child



Constant, Corneille and Appel in Karel Appel's studio, 1948
카렐 아펠의 스튜디오에서 콘스탄트, 코르네유 그리고 아펠 1948
© Ru Melchers / Fondation Constant

The birth of CoBrA 1948

In **1948**, Constant formed an avant-garde group connecting artists from France, Belgium, and Denmark. He wrote a manifesto, which was presented at a meeting gathering Appel, Corneille, Constant, Dutch artist Anton Rooskens, and his compatriot Theo Wolvecamp. Despite disagreements, the Experimental Group Holland was established. They published the first issue of their magazine, Reflex, in September, featuring Constant’s manifesto. Constant introduced Appel and Corneille to Belgian painter and poet Christian Dotremont in Brussels. In November, they attended an international avant-garde art conference in Paris, organized by the Revolutionary Surrealists. However, they disagreed with the French contingent and decided to leave the conference. They gathered at Café Le Notre Dame and found the CoBrA movement on November 8th. Dotremont later suggested the name as the movement’s name of the founding charter. This acronym is formed with the initials of the three capitals from which the founders originate: (Co)penhagen - Asger Jorn, (Br)ussels - Christian Dotremont and Joseph Noiret, (A)msterdam - Appel, Constant and Corneille. CoBrA, influenced by primitive and marginalized art, sought authentic and expressive works, promoting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Despite its brief existence, CoBrA significantly impacts European art, influencing subsequent movements like Action Painting and Abstract Expressionism.

Karel Appel & Niki de Saint Phalle

코브라CoBrA의 시작 1948

1948년 콘스탄트는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의 예술가를 잇는 아방가르드 그룹 Group Holland를 결성했다. 여러 의견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아펠, 코르네유, 콘스탄트, 안톤 루스켄스 Anton Rooskens와 테오 올베캠프 Theo Wolvecamp는 모두가 모인 곳에서 새로운 그룹의 결성을 선언하였다. 같은 해, 그들은 잡지 리플렉스 Reflex를 창간하였다. 콘스탄트는 화가이자 시인인 크리스티앙 도트레몽 Christian Dotremont에게 아펠과 코르네유를 소개하였고, 같은 해 11월 초현실주의자 그룹 Revolutionary Surrealists이 주최한 파리 국제 아방가르드 예술 학회에도 함께 참석한다. 그러나 그들은 프랑스 대표단과의 의견 마찰 끝에 회의장을 나섰고, 11월 8일 마침내 카페 르 노트르담 Le Notre Dame에 모여 《코브라 CoBrA》라는 이름 아래 예술운동을 시작했다. 코브라는 그들의 출신 국가 수도 3곳, 코펜하겐(Co-pen-hague, 아스거 욘 Asger Jorn), 브뤼셀(Br-ussels, 도트레몽과 조셉 누아레 Joseph Noiret), 암스테르담(A-msterdam, 아펠, 콘스탄트, 코르네유)의 이니셜을 따서 지어졌다. 원시적이고 동시에 소외된 예술을 상징하는 코브라는 풍부하고 솔직한 예술적 표현의 가치를 추구하였으며, 더불어 여러 예술사조 간의 포용과 어울림을 장려했다. 코브라는 짧았던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액션 페인팅과 추상 표현주의 등의 후속 예술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유럽 미술 전반에 의미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예술가로서의 성장 1950 – 1960년대

1950-60년대 전반에 걸쳐 카렐 아펠은 예술가로서 세계적인 인정과 성공을 거두었다. 아펠의 화풍은 다양한 재료의 사용 및 예술기법의 도전과 시도를 통해 발전하였으며, 이는 전통적 예술 형식의 경계를 확장 시켰다. 특히 파운드 오브제를 활용하여 3차원적 입체작품의 형태인 아상블라주 Assemblage를 탄생시켰다. 그 시기 아펠은 뉴욕과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예술가로서 명성을 쌓았다.

1952년 미술 평론가 미셸 타피에 Michel Tapié는 파리의 폴 파케티 Paul Facchetti 화랑에서 열린 《다른 종류의 예술 Un Art Autre》이라는 이름의 전시를 통해 아펠을 대중에게 소개하였다. 또한 타피에는 예술사조를 서술한 그의 책에서 아펠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아펠은 코브라 작가로는 유일하게 타피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아펠은 타피에와의 인연으로 조르주 마티외 Georges Mathieu, 앙리 미쇼 Henri Michaux, 장 포트리에 Jean Fautrier, 장 폴 리오펔 Jean Paul Riopelle, 샘 프란시스 Sam Francis, 마크 토비 Marc Tobey, 잭슨 폴록 Jackson Pollock 등 당대 유명 예술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아펠의 회화 기법은 물감의 물성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그는 이를 드마테리에 de materie-the matter라 불렀다. 캔버스 위에 튜브에서 짠 물감을 직접 바르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모래 등의 재료를 덧붙여 회화의 마티에르를 두껍게 만들고자 했다. 이와 같이 재료의 물성에 대한 강조는 아펠의 예술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1953년 네덜란드 대표로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하였으며, 유네스코 상을 수상했다. 아펠은 건축가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 장소나 사적 공간을 장식할 조각품을 제작하거나 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의 작품은 대담한 붓터치와 다채로운 색채, 풍부하고 솔직한 표현 등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Opening of Dutch Art Fair 77 at the Sonesta Hotel in Amsterdam by Princess Beatrix in presence of Karel Appel, 1 April 1977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소네스타 호텔에서 열린 베아트릭스 공주 주최의 77 더치 아트페어 개막식에 참석한 카렐 아펠, 1977년 4월 1일
 © Nationaal Archief, CCO / Bert Verhoeff / Anefo

The rise of an artist 1950s-1960s

In the **1950s** and **1960s**, Karel Appel achieved significant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success as an artist. During this period, his artistic style continued to evolve as he experimented with different materials and techniques, pushing the boundaries of traditional art forms. Notably, he incorporated found objects into his works, introducing elements of *assemblage* and expanding his artistic expression. Appel participated in exhibitions in major cities like New York and Paris, further establishing his reputation as a significant artist.

In **1952**, renowned French art critic Michel Tapié showcased Appel in his ground-breaking exhibition titled "Un Art Autre" (art of another kind) at Studio Paul Facchetti in Paris. Tapié also included Appel in his influential eponym book, making him the sole CoBrA artist to receive such support from Tapié. This association with Tapié connected Appel with prominent artists such as Georges Mathieu, Henri Michaux, Jean Fautrier, Jean Paul Riopelle, Sam Francis, Marc Tobey, and Jackson Pollock. Appel's painting technique revolved around the materiality of paint, which he referred to as "de materie" (the matter). He employed a direct application of paint from the tube and often added substances like sand to thicken it. This emphasis on the material aspects of paint became a central theme in Appel's artistic expression.

In **1953**, he represented the Netherlands at the Venice Biennale and received the prestigious UNESCO award. He collaborated with architects on various projects, creating sculptures and murals for public and private buildings. His artwork became renowned for its bold brushstrokes, vibrant colours, and expressive energy.

His solo show at Studio Paul Facchetti in Paris organized by Michel Tapié enabled him to meet Martha Jackson, a famous New York gallerist, starting a professional relationship that lasted for seventeen years. He had his first solo exhibition at

미셸 타피에는 폴 파케티 화랑에서 아펠의 개인전을 기획, 전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아펠은 뉴욕의 유명 갤러리스트인 마사 잭슨 Martha Jackson을 만나 17년이 넘는 시간동안 우정을 이어 나갔다. 같은 해 아펠은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에서의 첫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1957년** 뉴욕으로 떠난 아펠은 디지 길레스피 Dizzy Gillespie, 마일스 데이비스 Miles Davis, 카운트 베이시 Count Basie 등의 재즈 음악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작가의 예술세계에 새로운 발전을 이루고자 했다.

1961-62년 감독 안 브리만 Jan Vrijman은 아펠의 예술가로서의 여정과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영화를 제작하였다. 영화 속에는 디지 길레스피와 아펠이 함께 작업한 노래가 삽입되었다.

1965년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은 아펠의 예술적 발전과 그 과정을 조명하는 회고전을 개최하였다.

영감을 향한 여정: 예술적 변화와 발전 1970 - 1980년대

1970-80년대에 걸쳐 아펠은 여행을 통해 새로운 표현 기법과 다양한 주제에 대한 탐구를 시도한다. 그는 남미, 멕시코, 뉴욕, 캐나다,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페루 등 여러 장소로의 여행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표현적 영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시인이나 음악가와의 협업을 통해 시각 예술을 넘어 예술의 경계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속했다.

카렐 아펠: 헌신과 유산 1990 - 2000년대

1990년대부터 아펠은 건강 악화로 인하여 예술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펠은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의 작품들은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며 작가에게 수많은 상과 영예를 안겨주었다.

the Stedelijk Museum Amsterdam in the same year, solidifying his presence in the art world. Appel's artistic journey took him to New York in **1957**, traveling with Martha Jackson, where Appel encountered Abstract Expressionist painters and jazz musicians such as Dizzy Gillespie, Miles Davis, Count Basie, which had a profound influence on his artistic development.

In **1961-62**, "The Reality of Karel Appel," a feature film directed by the Dutch filmmaker Jan Vrijman, showcased the artistic journey of Karel Appel. The film featured a captivating musical score composed by both American musician Dizzy Gillespie and Appel himself.

In **1965**, the Stedelijk Museum Amsterdam held a retrospective exhibition of Appel's work, showcasing his artistic progression.

Journeys of inspiration: Appel's artistic exploration and international recognition 1970s-1980s

During the **1970s** and **1980s**, Karel Appel entered a period of artistic exploration, where he delved into new techniques, themes, and travel experiences. He embarked on journeys to various countries, including South America, Mexico, New York, Canada, Japan, Indonesia, India, Nepal, and Peru, which provided him with fresh perspectives and inspiration. Collaboration played a vital role in his creative journey as he collaborated with poets and musicians, expanding his artistic horizons beyond visual art.

Karel Appel: between artistic dedication and a lasting legacy 1990s-2000s

In the **1990s** and **2000s**, Karel Appel faced health challenges but remained dedicated to his artistic pursuits. Despite these difficulties, his ground-breaking work continued to receive global recognition and numerous awards and honours.

In **1999**, the Karel Appel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Amsterdam, further solidifying the commitment to preserve and promote his artistic legacy.

Karel Appel passed away on **May 3rd, 2006**, in Zurich. He was laid to rest at the Cimetière du Père-Lachaise in Paris, leaving behind a long-lasting and profound legacy, he stands as one of the foremost figures in post-war European art. His distinctive artistic style remains a timeless source of inspiration and influence for artists worldwide, firmly establishing him as a visionary within the art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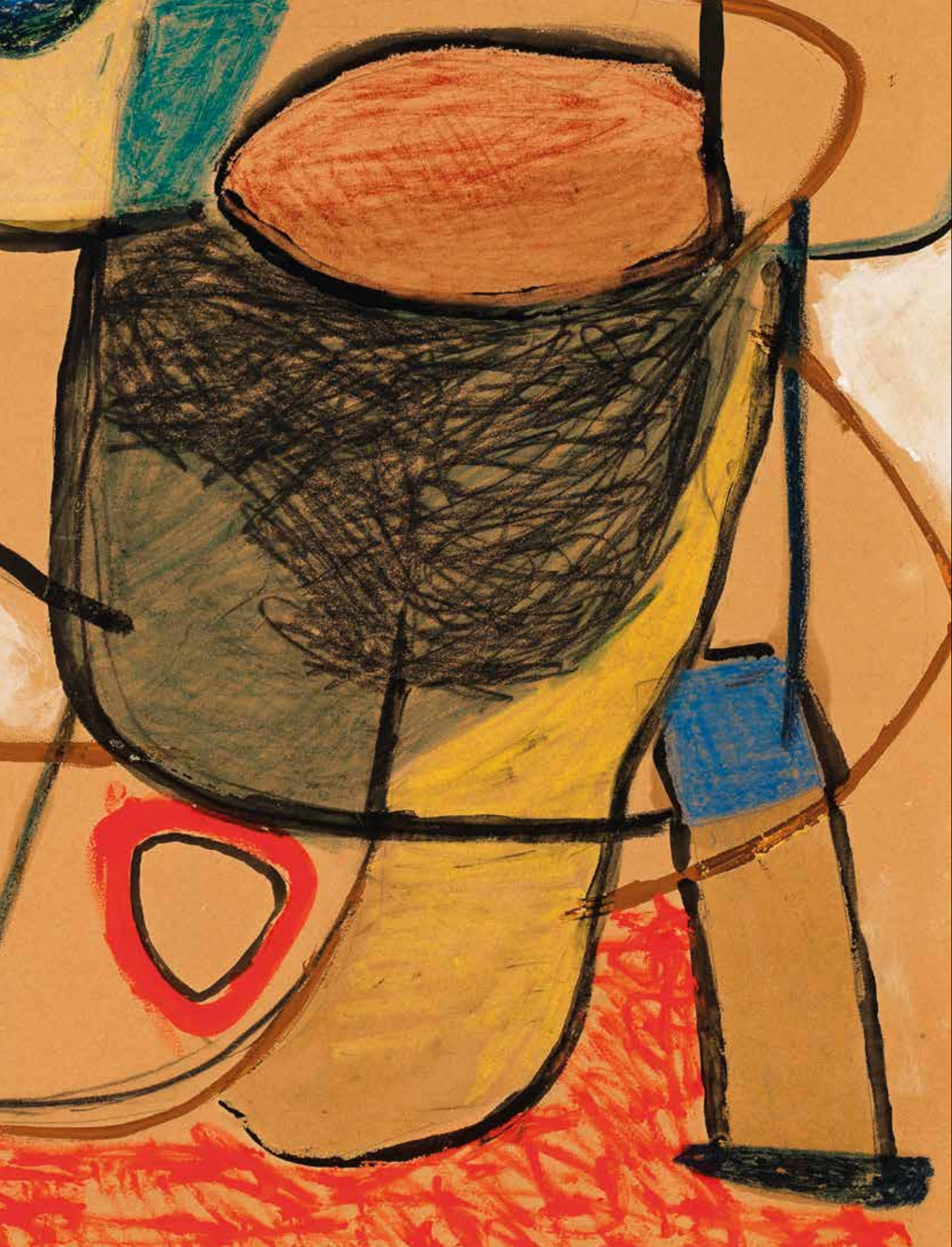
Karel Appel exhibition at Stedelijk Museum, Appel in front of his painting 'Deux figures', 25 June 1965 /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전시 중 작품 'Deux figures' 앞에 선 카렐 아펠, 1965년 6월 25일 © Nationaal Archief, CCO / Evers Joost / Anefo

1999년 아펠의 예술사적 상징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카렐 아펠 재단 Karel Appel Foundation이 설립되었다.

2006년 5월 3일, 카렐 아펠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파리의 시메티에르 뒤 뻬르 라셰스 Cimetière de Père-Lachaise 묘지에 안장되었다. 아펠은 오랜 시간 기억될 예술적 유산을 남겼으며, 전후 유럽 미술을 대표하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 받는다. 오늘날까지 아펠만의 독특하고 솔직한 예술적 화풍과 표현은 전 세계 예술가들에게 시대를 초월한 영감으로 전해지고 있다.



Setting up the 'Appel' exhibition at the Stedelijk Museum in Amsterdam (25 June - 30 August 1965), 24 June 1965 /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 'Appel' 전시를 준비하는 카렐 아펠의 모습 (1965년 6월 25일 - 8월 30일), 1965년 6월 24일 © Nationaal Archief, CCO / Jac. de Nijs / Anefo



To Start Again Like a Child

Karel Appel & Niki de Saint Phalle

Appel's Animals

아펠의 동물들

Untitled

1950

종이에 혼합재료
Mixed media on brown paper
Signed and dated 'k. appel 50' on the lower right

64 x 49,5 cm | 25.2 x 19.5 in

PROVENANCE

Galerie Spiegel, Cologne, Germany
Private collection, Germany
Dorotheum, Vienna, 17 May 2018, lot 365
Private collection, The Netherlands

EXHIBITED

Hamburg, Kunstverein Hamburg, *Cobra*,
25 September - 7 November 1982, ill. p. 62, no. 17

CERTIFICATE

Jan Nieuwenhuizen Segaar has confirmed the
authenticity of this work



Woman and Bird on Beach

1956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Signed and dated 'ck. appel 56' on the lower right

96 x 129,5 cm | 37.8 x 51 in

PROVENANCE

Martha Jackson Gallery, New York, United States
Private collection

EXHIBITED

New York, Martha Jackson Gallery, *Karel Appel:
Painting and Creative Portraits*, 1957

Karel Appel, the co-founder of the CoBrA movement, set the tone: art would be exuberant. His "riots of colour" gave birth to a wild and volcanic primitivism. Venturing beyond expressionism, his experimental approach transcended into informality. Appel's vehement palette, enriched with layers of thick matter that brought forth allusive forms, reminiscent of the artistry found in children's creations, avoided the pitfall of abstraction.

코브라 운동의 공동 창시자인 카렐 아펠은 예술은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색의 폭발"은 야생적이고 화산처럼 폭발적인 원시적인 풍경을 탄생시켰다. 표현주의를 뛰어넘어 그의 실험적인 접근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지니고 비형식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아펠의 강렬한 색채는 두드러지는 형태로 어린이들의 예술적 창작에서 영감을 받아 추상화의 함정을 피해 나간다.



Composition 1963

패널에 혼합재료
Mixed media on panel
Signed and dated 'appel 63'
on the lower right

69 x 98 cm | 27.2 x 38.6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Artcurial, Paris, 3 April 2007, lot 395
Opera Gallery
Private collection





Space Animals 1970

캔버스에 아크릴
Acrylic on canvas
Signed and dated 'appel 70' on the lower left

118,1 x 148 cm | 46.5 x 58.3 in

PROVENANCE

Martha Jackson Gallery, New York, United States
Galerie Moos, Geneva, Switzerland
Private collection
Christie's, New York, 12 November 2003, lot 416
Private collection, New York, United States

EXHIBITED

New York, Martha Jackson Gallery, *Karel Appel: Sculpture, Reliefs and Paintings*, October - November 1971
Stratford, Ontario, Rothman's Art Gallery, *Appel's Appels*, June 1972 - September 1974, ill. p. 62, no. 64; this exhibition later travelled to Victoria, British Columbia, Art Gallery of Greater Victoria; Edmonton, Alberta, The Edmonton Art Gallery; Winnipeg, Manitoba, The Winnipeg Art Gallery; Halifax, Nova Scotia, Dalhousie University Art Gallery; London, Ontario, London Public Library; Hamilton, Ontario, Art Museum and Art Gallery of Hamilton; New York, New York Cultural Center; Miami, Miami Art Center; Oklahoma City, Oklahoma Art Center; Fort Lauderdale, Florida, Fort Lauderdale Museum of Art; Phoenix, Arizona, Phoenix Art Museum

Blue Bird

1971

종이에 아크릴, 캔버스 배접

Acrylic on paper laid down on canvas

Signed and dated 'appel 70' on the lower left

58 x 75,6 cm | 22.8 x 29.8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Eberhard Auctions, Zürich, May 1988, lot 237

Karsten Hesselhog, Denmark

Private collection, 2010



Garçon de ferme et chien volant 1972

캔버스에 유채, 채색된 나무 조각(오브제)
Oil on canvas with painted wood relief
Signed and dated 'appel 1972' on the
lower right; signed, titled and dated on the
stretcher

147,5 x 114,3 cm | 58.1 x 45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Europe

EXHIBITED

New York, Aberbach Fine Art, *Karel Appel*.
Recent works, September 1973, no. 5





Cow

1982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Signed and dated 'appel 1882'
on the lower right

Diptych:
193,5 x 448 cm | 76.2 x 176.4 in

PROVENANCE

Galerie Nova Spectra, The Hague, The Netherlands
Private collection

EXHIBITED

Fort Lauderdale, Florida, Museum of Art, *Karel Appel:
Recent Paintings and Sculpture: Clouds, Windmill,
Nudes and Other Mythologies*, 1986



Si près et pourtant si loin
1987

일본 닥종이에 유채, 아크릴, 과슈, 잉크, 실크 배접
Oil, acrylic, gouache and ink on Japanese paper
mounted on silk
Signed and dated 'appel 26/12/1987' on the lower right
Kite executed by M. T. Kashima

373 x 233 cm | 146.9 x 91.7 in

PROVENANCE

Dr Paulm Eubel collection, Germany

EXHIBITED

Sendai, Miyagi, Art Museum, 11 June - 10 July 1988
Mie, Tsu, Art Museum, 30 July - 3 November 1988
Shiga, Museum of Modern Art, 22 October -
11 December 1988
Himeji, State Museum of Art, 3 - 28 March 1989
Gunma, Hara Museum Arc, 15 April - 4 June 1989
Nagoya, State Museum of Art, 5 September - 1 October 1989
Hiroshima, State Museum of Modern Art, 10 October -
12 November 1989
Shizuoka, Museum of Modern Art, 23 July -
27 August 1989
Munich, Haus der Kunst, 16 December 1989 -
18 February 1990
Paris, Grande Halle de la Villette, *L'Art prend l'air.
Cerfs-volants d'artistes*, 24 April - 1 July 1990
Düsseldorf, Kunstsammlung Nordrhein-Westfalen,
13 July - 6 September 1990
Moskow, Centralim Dom, 20 September - 21 October 1990
Hamburg, Deichtorhalle, 3 November - 7 December 1990
Lisbon, Gulbenkian Foundation, 21 December 1990 -
27 January 1991

Brussels, Musée des Beaux-Arts, 7 February - 7 April 1991
Berlin, Nationalgalerie, 28 June - 11 August 1991
Copenhagen, Charlottenburg Castle, 24 August -
29 September 1991
Turin, Promotrice delle Arti, 19 October - 8 December 1991
Turin, Galleria Nazionale d'Arti
Roma, Galleria Nazionale d'Arte Moderna, 5 March -
17 May 1992
Sevilla, Expo 92, 4 - 26 June 1992
Kassel, Documenta-Halle, 1992
Montreal, Musée des Beaux-Arts, 11 June -
26 September 1993
Sydney, Darling Harbour Exhibition Hall, 1994
Lübeck, Holstentorhalle, MuK, Petrikirche, 1995
Buenos Aires, 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1995
Montevideo, Museo Nacional de Artes Visuales, 1996
Detmold, Fliegerhorst, Hohenloh, 1997
Luxemburg, Halle Victor Hugo, 1998
Detmold, Art kite Museum, 1999 - 2005

LITERATURE

Paul Eubel, *Bilder für den Himmel, Detmold : Art Kite Museum -
Museum für Kunstdrachen*, 2000, ill. in colour p. 299
Paul Eubel, *Pictures for the sky, Art Kites*, Goethe Institute,
Osaka, 1988





To Start Again Like a Child

Karel Appel & Niki de Saint Phalle

Personnages

인물들

Tête d'hom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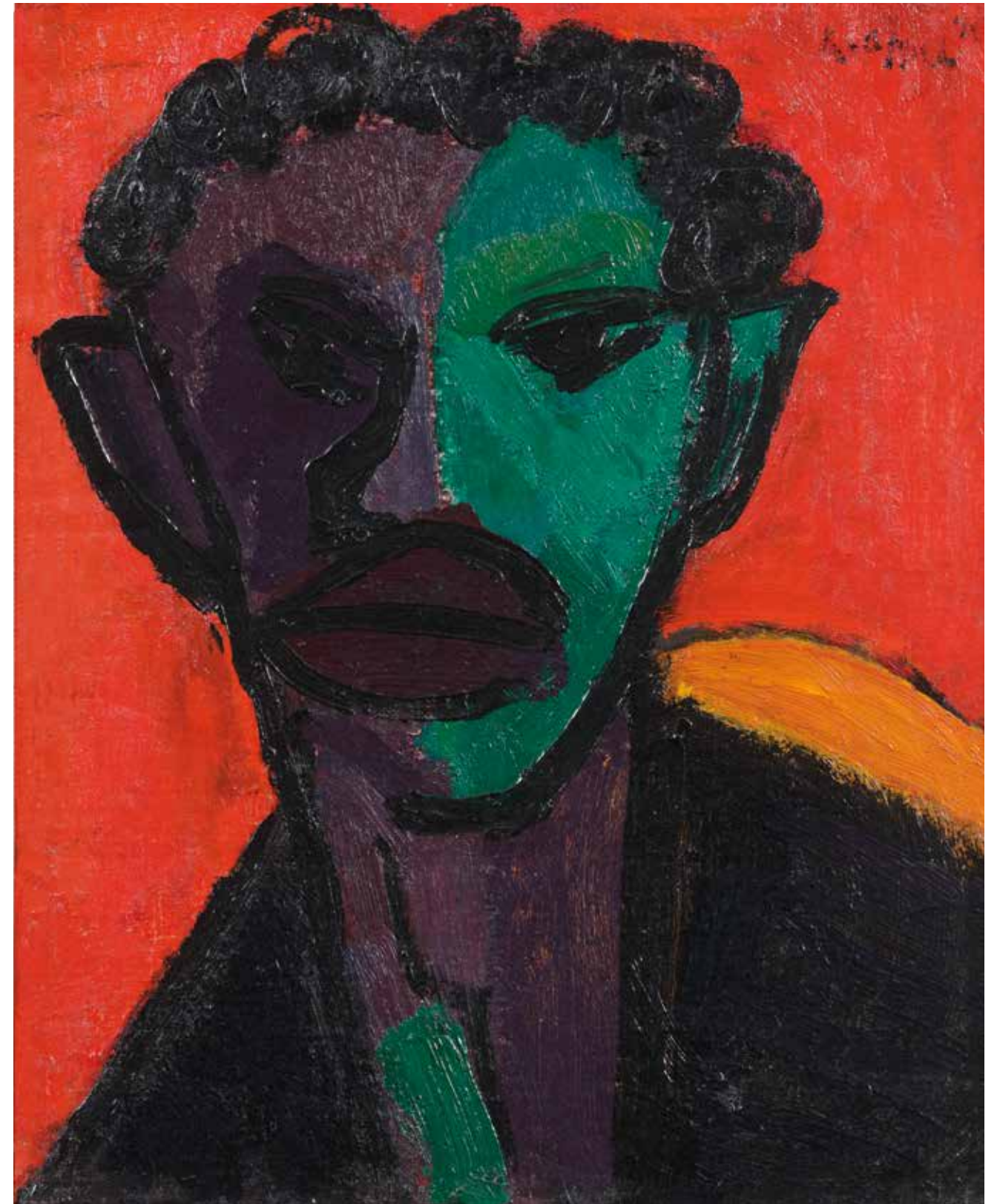
1946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Signed and dated 'k. appel 46' on the upper right

50 x 40 cm | 19.7 x 15.7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The Netherlands (acquired from the artist)
Private collection



Marry Me Again (Indian Couple)

1963

캔버스에 유채, 콜라주
Oil and collage on canvas
Signed and dated '63 appel' on the lower left and on the reverse; inscribed and dated on the stretcher

146 x 114 cm | 57.5 x 44.9 in

PROVE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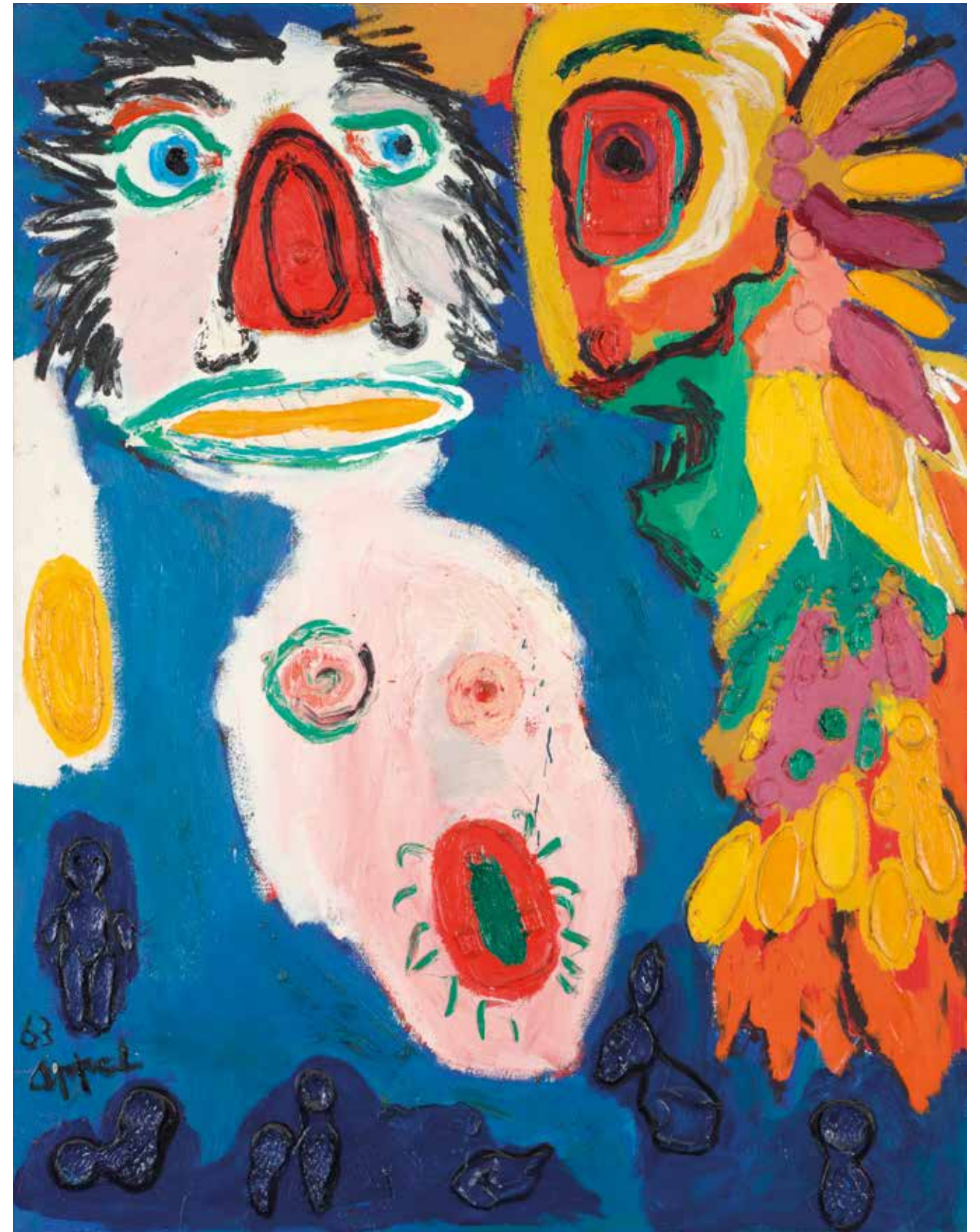
Private collection (acquired from the artist), early 1990's
Private collection (by descent)

EXHIBITED

Utrecht, Centraal Museum, *Appel's oogappels*, 1970,
no. 70, ill. unpagged

LITERATURE

Peter Berger, *Karel Appel*, Van Spijk (Publisher), Venlo 1977, ill.
p. 55



Sans titre

1971

종이에 아크릴
Acrylic on paper
Signed and dated 'appel 71' on the lower left

58,4 x 73 cm | 23 x 28.7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Private collection (acquired as a gift from the artist)



Tête en relief

1971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Signed and dated 'appel 71' on the lower left

81 x 65 cm | 31.9 x 25.6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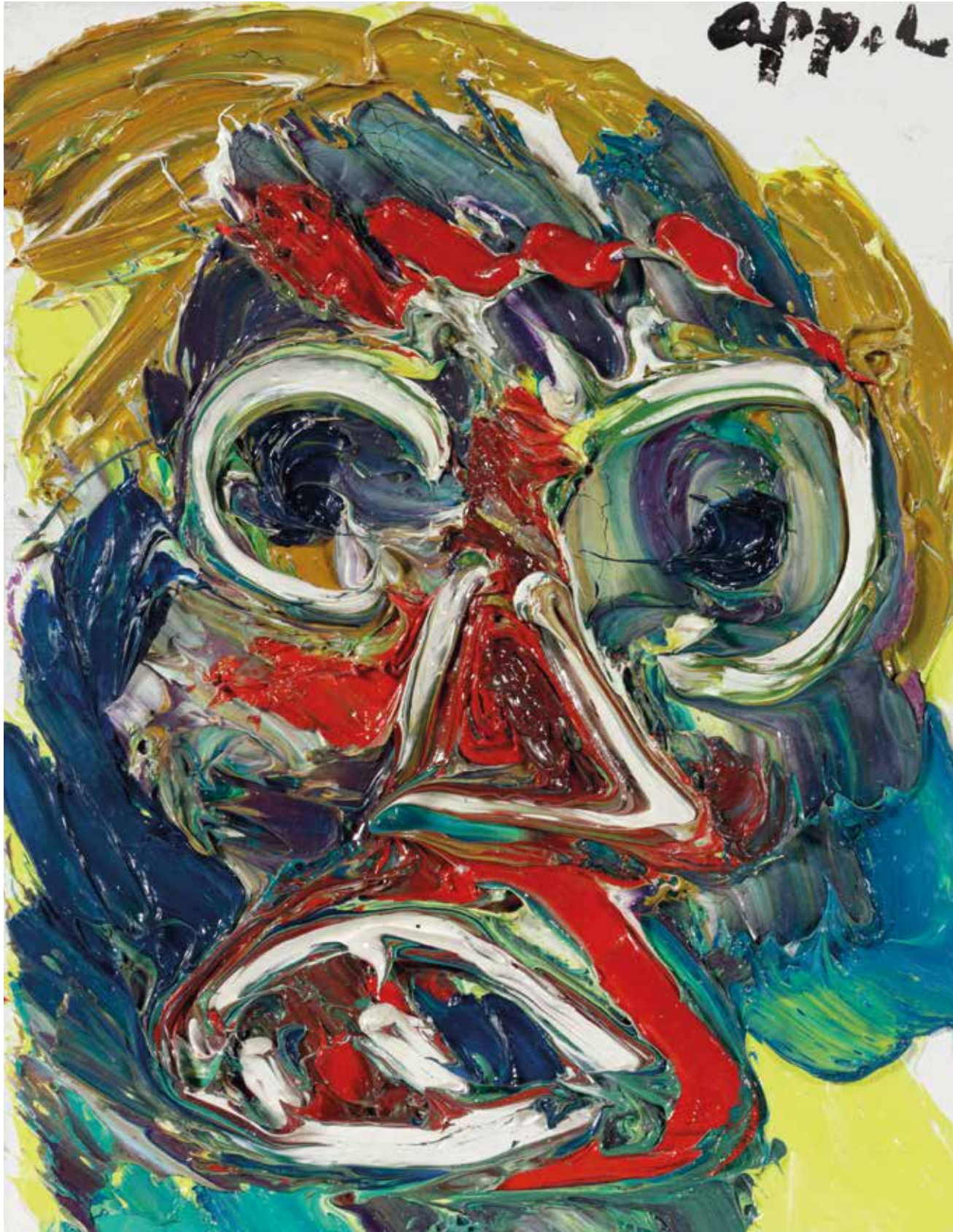
PROVENANCE

Galerie Ariel, Paris, France
Galleria d'Arte Rotta Farinelli, Genoa, Italy
Private collection, Milan, Italy

CERTIFICATE

Jan Nieuwenhuizen Segaar has confirmed
the authenticity of this work





Grim Face

1976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Signed 'appel' on the upper right; titled
on the stretcher

34,5 x 27 cm | 13.6 x 10.6 in

PROVENANCE

Galerie Nova Spectra, The Hague, The Netherlands
Private collection, The Netherlands, 1976
Christie's, Amsterdam, 5 June 2007, lot 223
Private collection

Sans ti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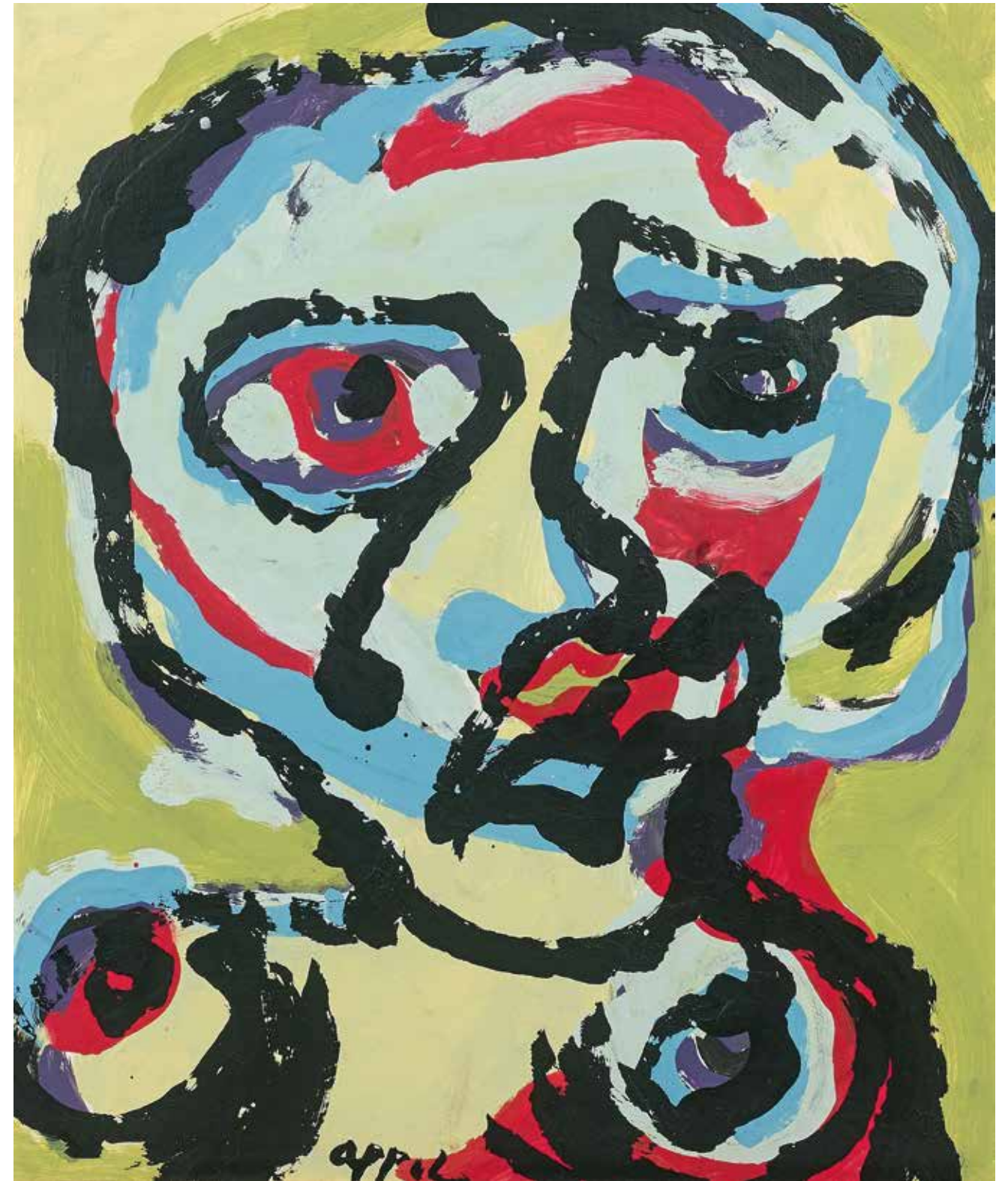
Circa 1980

종이에 아크릴, 캔버스 배접
Acrylic on paper laid down on canvas
Signed 'appel' on the lower center

77,5 x 65,5 cm | 30.5 x 25.8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Belgium
Private collection (by descent)



Sans titre

Circa 1980

종이에 아크릴, 캔버스 배접
Acrylic on paper laid down on canvas
Signed 'appel' on the lower right

90 x 60,5 cm | 35.4 x 23.8 in

PROVENANCE

Galerie Michel Delorme, Paris, France
Private collection





Sans titre

1999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Signed 'appel' on the lower right and dated '99' on the lower left

150 x 100 cm | 59.1 x 39.4 in

PROVENANCE

Galleria Arte 92, Milan, Italy
Private collection, Europe

EXHIB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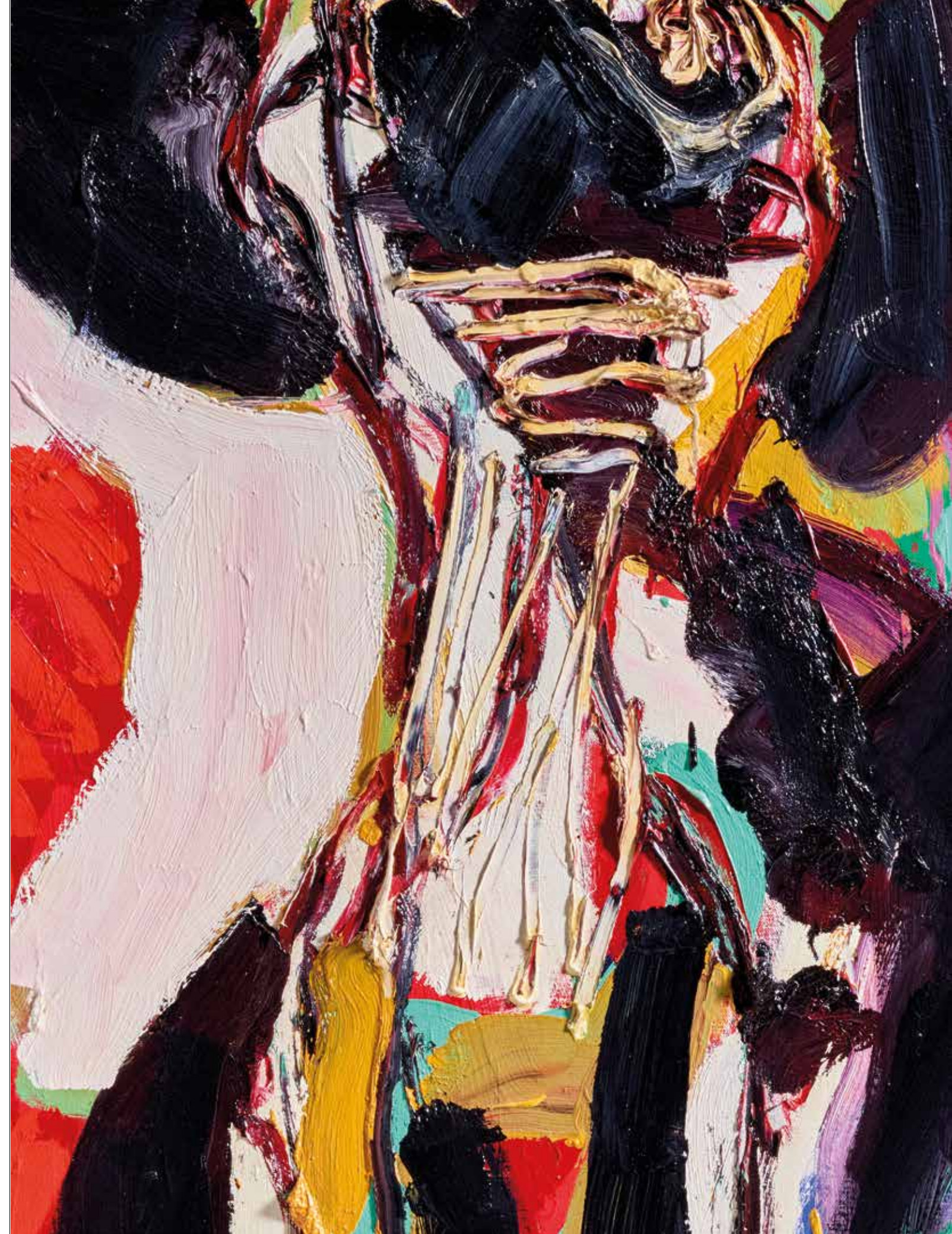
Milan, Galleria Arte 92, *Karel Appel. Opere 1991-2002*, 10 March – 9 July 2005, ill. p. 47

LITERATURE

This work is featured in the online
Catalogue raisonné

CERTIFICATE

The Appel Foundation has confirmed the
authenticity of this work





To Start Again Like a Child

Karel Appel & Niki de Saint Phalle

Fantasy Space

환상의 공간

Nu abstrait

1957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Signed and dated 'K appel 57' on the lower left

116 x 80,5 cm | 45.7 x 31.7 in

PROVENANCE
Martha Jackson Gallery, New York, United States
Il Prisma Galleria d'Arte, Cuneo, Italy
Contempo Modern Art Gallery, Eindhoven, The Netherlands
Galerie Triade, Knokke-le-Zoute, Belgium
Vecchiato Art Galleries, Forte dei Marmi, Italy
Private collection, 2001



Head on the Sea

1958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Signed and dated 'appel 58' on the lower left; signed,
titled and dated on the stretcher

130 x 162 cm | 51.2 x 63.8 in

PROVENANCE

Ernest Raboff Gallery, Los Angeles, United States
Private collection, Belgium
Versailles Enchères, Versailles, 15 April 2007, lot 160
Private collection





Cri Tournant

1959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Signed and dated 'appel 59' on the lower left

130 x 195 cm | 51.2 x 76.8 in

PROVENANCE

Esther Robles Gallery, Los Angeles, United States
Samuel Schulman collection, Beverly Hills, United States
Perrin-Royère-Lajeunesse, Versailles, 26 June 2005
Private collection, Cannes, France

EXHIBITED

Los Angeles, Esther Robles Gallery, *Karel Appel*, 1959

CERTIFICATE

Jan Nieuwenhuizen Segaar has confirmed the authenticity of this work

This scream is a tornado of painting. The swirling subject is sucked into this informal maelstrom of vertiginous impetuosity, leaping on its incommunicability to describe and identify anything. Sign and myth come together in the identity of Karel Appel, whose vision of the world is fractured and tense, and where colour and matter freely celebrate a raw universe of overflowing sensuality.

이 비명은 물감의 회오리이다. 빙빙 돌아가는 형상은 마치 우리를 아찔하고 격렬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아들이는 듯하며, 단순히 표현하거나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다. 아펠의 정체성 속에서 기호와 신화가 결합하여 그의 세계는 파편화 되고 긴장된 비전으로 가득 차 있다. 여기에는 색과 물질이 자유롭게 넘치고, 순수한 감각의 원시적인 우주를 자유롭게 표현한다.

Sans titre 1961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Signed 'appel' on the lower right;
dated on the reverse

46,4 x 33 cm | 18.3 x 13 in

PROVENANCE

The Marble Arch Gallery, New York, United States
Private collection, 1964



Little Mushroom Men 1961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Signed and dated 'appel 61' on the lower right

161 x 129 cm | 63.4 x 50.8 in

PROVENANCE

Gimpel Fils Gallery, London, United Kingdom
Private collection (by descent)

EXHIBITED

London, Gimpel Fils Gallery, *Karel Appel 1962*,
catalogue, ill. in colour, no. 10





Homme et Femme
1968

보드에 콜라주
Collage on board
Signed and dated 'appel 1968'
on the lower right

PROVENANCE
Galley Urban, New York, United States
Private collection

162,6 x 121,9 cm | 64 x 48 in



Untitled
1968

캔버스에 혼합재료, 콜라주
Mixed media and collage on canvas
Signed and dated 'appel 1968' on the
lower right

PROVENANCE
Artist's studio, 1968
Gimpel Fils, New York, United States, 1968
Leo Castelli, New York, United States, 1969
Private collection

162 x 122 cm | 63.8 x 48 in

Personnage

1969

캔버스에 아크릴
Acrylic on canvas
Signed and dated 'appel 69' on the lower right

81,2 x 73,6 cm | 32 x 29 in

PROVENANCE

Gallery Moos, Toronto, Canada
Circle Arts International, Toronto, Canada
Private collection, Canada





Personnages
1970

종이에 아크릴, 캔버스 배접
Acrylic on paper laid down on canvas
Signed and dated 'appel 1970' on the lower left

122 x 162 cm | 48 x 63.8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Spacious Persons 1972

캔버스에 아크릴
Acrylic on canvas
Signed and dated 'appel 72' on the lower left

88,9 x 115,6 cm | 35 x 45.5 in

PROVENANCE

Galerie Ariel, Paris, France
Christie's, New York, 12 November 2003, lot 417
Private collection, New York, United States

People in the Fallen City 1989

종이에 아크릴, 크레용

Acrylic and crayon on paper

Signed and dated 'Appel 89' on the lower left; signed, dated and titled on the reverse

85 x 103 cm | 33.5 x 40.6 in

PROVENANCE

Mainichi communications collection, Japan
JAD Gallery, Tokyo, Japan
Private collection



“It's my destiny to make a place
where people can come and be happy:
a garden of joy.”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나의 운명입니다:
기쁨의 정원이죠."



Niki de Saint Phalle, 1972 (*Niki smiles*) / 니키 드 생팔, 1972 (웃고 있는 니키)
© Laurent Condominas

p 12 - 75 Karel
Appel

p 76 - 153 Niki
de Saint
Phalle

Chronology

A tormented youth

1930 - 1952

Catherine Marie-Agnès Fal de Saint Phalle was born on **October 29th, 1930** in Neuilly-sur-Seine to Jeanne-Jacqueline Harper and to André Marie de Saint Phalle. The latter was a well-known banker whose company went bankrupt during the Wall Street Crash of 1929. Niki de Saint Phalle considered herself "a child of the depression", as she was born out family bankruptcy and as her mother suffered from depression due to her husband's infidelities.

In her early years, she was raised by a nanny she nicknamed Nana, a foreshadowing of the feminine and sensual figure that would later inhabit her art. Her mother started calling her Niki at that time.

During her life as a student, she particularly enjoyed the calligraphy class in which she developed her handwriting and worked on the pretty curves that would later be found in her work and letters. Her creative skills started showing from the age of 6 - she was constantly drawing complex and rich forms, curved lines, twists and turns.

In the summer of **1942** - which Niki de Saint Phalle called "Summer of Snakes" -, she was raped by her father.

At 14, she painted the genitals of her school's statues blood red in an act of defiance. At 17, she started a career as a model posing for *Elle*, *Harper's Bazaar*, *Vogue*, and even being the cover girl for *Life*.

In **1949**, aged 18, she distanced herself from the family setting to marry her childhood friend, poet and musician Harry Mathews. Their daughter Laura was born on April 23rd, 1951.

Art-therapy

1953 - 1963

In the summer of **1952**, they traveled to the South of France, Spain, Italy... Niki de Saint Phalle was particularly stricken by cathedrals as she saw "a collective ideal" in them. That very figure was to become recurring in her artwork; according to her, art was a collegial act born from mutual stimulation and enrichment.

In **1953**, Niki de Saint Phalle went through severe depression and was committed to a psychiatric hospital in Nice. That is where she discovered painting, an art that proved to be a real therapy for her: "I started painting among the insane... I discovered the dark world of madness and its cure, I learned to translate my feelings, fears, violence, hope and joy into paintings." (Catherine Francblin, *Niki de Saint Phalle, la révolte à l'œuvre*, éditions Hazan, 2013).

1955 marked another turning point for Niki de Saint Phalle. Her son Philip was born on May 1st. She later left for Madrid and then Barcelona, where she discovered the work of Gaudí, and

니키 드 생팔 - 연보

잔혹한 유년

1930 - 1952

니키 드 생팔 Niki de Saint Phalle, 본명 카트린 마리-아그네 팔 드 생팔 Catherine Marie-Agnès Fal de Saint Phalle은 **1930년 10월 29일** 뉘이쉬르센에서 장-재클린 하퍼 Jeanne-Jacqueline Harper와 앙드레 마리 드 생팔 André Marie de Saint Phalle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 중 아버지였던 앙드레 마리 드 생팔은 유명한 은행가였는데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에서 회사를 파산으로 잃기도 했다. 니키 드 생팔은 스스로를 "대공황의 자식"이라 평했는데 이는 그녀가 가족이 파산을 겪던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을 가리켰다.

생팔은 어린 시절 유모의 손에서 자랐다. 그녀는 유모를 ‘나나’라는 별명으로 불렀는데, 이 별명은 후일 그녀의 작품세계에 자리잡게 되는 관능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암시한다. 한편, 생팔의 어머니가 그녀를 ‘니키’라는 애칭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었다.

생팔은 학창 시절 캘리그래피 수업에서 특히 많은 즐거움을 찾았는데 해당 수업들에서 발전시킨 특유의 손글씨와 아름다운 곡선 드로잉 기술은 이후 그녀의 작품과 편지에 고루 등장하게 된다. 생팔은 6살부터 예술에 대한 두각을 보였는데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복잡하고 풍성한 형태를 그려낼 수 있었고 곡선, 교차, 방향전환 등을 구사했다.

1942년 여름 생팔은 아버지에게 강간당했다. (생팔은 후일 이를 ‘뱀의 여름’이라고 지칭했다.)

14세에 생팔은 학교에 있는 동상들의 음부를 핏빛을 띤 붉은색으로 칠하며 저항 정신을 드러냈다. 17살에는 본격적으로 모델 일을 시작해 《엘르》, 《하퍼스 바자》, 《보그》 등과 촬영하며 심지어는 《라이프》지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다.

1949년 생팔은 그녀의 소꿉친구이기도 했던 시인 및 음악가 해리 매튜스 Harry Mathews와 결혼하기 위해 가족에게서 벗어났는데 이때 그녀의 나이는 불과 18살이었다. 1951년 4월 23일 생팔은 매튜스와의 사이에서 딸 로라 Laura를 출산했다.

미술치료와의 조우

1953 - 1963

1952년 여름 생팔은 가족과 함께 프랑스 남부, 스페인 및 이탈리아를 여행했는데 여행 중 특히 성당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는 그녀가 성당들에서 일종의 ‘집단적 이상향’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성당의 개념은 이후 그녀의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동류의 것 여럿이서 서로 자극과 상승작용을 주고받는 상황이 곧 미술’이라는 그녀의 믿음에 기인하고 있었다.

1953년 생팔은 극도의 우울증으로 인해 니스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데 이곳에서 회화를 처음 접한 그녀는 회화라는 장르가 그녀에게 상당한 치료적 효험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광인들 사이에서 회화를 처음 시작했다. (중략) 광증이라는 어둠의 세계를 만났지만 이에 대한 치료제 또한 얻었는데, 내가 겪는 감정, 공포, 폭력, 희망, 기쁨 등을 회화로 풀어내는 것이 그 방법이었다." (Catherine Francblin, 《Niki de Saint Phalle, la révolte à l'œuvre》, éditions Hazan, 2013)

1955년에는 생팔의 삶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일어났는데 바로 5월 1일에 아들 필립 Philip을 세상으로 맞이한 일이었다. 생팔은 곧이어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여행하며 가우디의 작품을 처음 접한다. 그 중에서도 구엘 공원이 그녀에게 특히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이때 느낀 미적 감탄은 후일 그녀가 작품 세계의 일환으로 조각 공원 《타로 공원 Tarot Garden》을 세우도록 이끌며 생팔의 미적 언어에 하나의 정점을 세운다.

To Start Again Like a Child



Dragon in Park Güell, Barcelona, Spain / 구엘 공원에 설치된 용, 바르셀로나, 스페인 © Ajuntament Barcelona via Flickr

particularly Park Güell. That aesthetic shock would later be an inspiration for her own sculpture park, the *Tarot Garden*, which represents the peak and completion of her vision.

In **1956**, Niki de Saint Phalle completed a series of oil paintings. That same year, she met Jean Tinguely and his wife Eva Aeppli. When she set out to create her first sculpture a few months later, Jean helped her weld a metal frame which she then covered with plaster. She worked extensively with her New Realist friends; just like them, her paintings incorporated recycled materials and objects: children's toys, fabric, pieces of wood, but also knives and razor blades that she used to carry in her handbag. Niki de Saint Phalle also collected pairs of scissors that she put between her mattress and box spring, as symbols of buried violence. The world she developed was then tragic and provocative (*Paysage de la mort*, *You are me*).

On **February 12th, 1959**, she organised her first session of "shots" on impasse Ronsin. A dozen others were to take place between **1961** and **1963**. It was the starting point of what particularly characterised the beginnings of her artwork, i.e. "Art-action" or public performance. With a rifle in hand, she shot at a set of disparate objects so as to burst colour packets that had been arranged on a layer of plaster. "Ready! Take aim! Fire! Red, yellow, blue, the painting weeps, the painting is dead. I have killed the painting. It has been reborn. War without victims." The final work was entitled *Shooting paintings*.

The artist's first solo exhibition was organised by Pierre Restany and his wife Jeannine de Goldschmidt at Galerie J in **June 1961**. The exhibition, entitled *Feu à volonté (Fire at will)* invited visitors to shoot at paintings. In **October 1961**, Niki de Saint Phalle also exhibited her work at the MoMA in New York.

Karel Appel & Niki de Saint Phalle

1956년 생팔은 한 편의 유화 연작을 완성함과 더불어 장 텡겔리 Jean Tinguely와 그의 아내 에바 애플리 Eva Aeppli를 만나게 된다. 몇 달 후 생팔은 처음으로 조각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금속 뼈대에 석고를 덮는 방식으로 제작하였고 금속을 용접하는 데에 텡겔리의 도움을 받았다. 신사실주의 New Realism 작가들과 새롭게 친분을 맺게 된 생팔은 이들과 함께 활발한 작업을 벌였다. 동료 작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생팔도 회화의 표면에 재할용된 사물과 오브제 등을 접착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장난감, 천, 나무 조각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항상 자신의 핸드백에 소지하고 다니던 칼과 면도날 등도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생팔은 각종 가위를 수집하여 자신이 쓰는 침대 매트리스의 스프링 사이에 넣어두었는데 이는 감추어진 폭력을 상징했다. 《죽음의 풍경 Paysage de la mort》, 《당신이 곧 나 You are me》등을 비롯한 이 시기의 작품은 비극적이고 도발적인 성격을 지녔다.

1959년 2월 12일, 생팔은 파리의 골목 중 하나인 ‘론신의 막다른 골목 Impasse Ronsin’에서 그녀의 첫 ‘사격’을 진행했다. 이후로도 **1961년**과 **1963년** 사이에 십수 회의 ‘사격’이 추가로 진행되며 생팔의 작품세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적인 《미술-행동 Art-action》또는 대중 퍼포먼스가 출범한다. 그녀가 화면 위로 배치된 여러 개의 사물에 연총으로 총알을 쏘면 이로 인해 한 겹의 석고 아래에 놓인 물감 주머니들이 터지는 방식이었다. "준비! 조준! 격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림이 울고 있다, 그림은 죽었다. 나는 그림을 죽였다. 그리고 다시 살려냈다. 이는 사상자가 없는 전쟁이다." 그녀는 이렇게 완성된 작품에 《사격 회화 Shooting paintings》라는 제목을 붙였다.

생팔의 첫 개인전은 **1961년 6월** 갤러리 J에서 열렸는데 피에르 레스타니 Pierre Restany와 그의 아내 자닌 드 골슈미트 Jeannine de Goldschmidt가 기획한 《자율 사격 Feu à volonté》이라는 제목의 이 전시에서 관객들은 전시장의 그림들을 과녁처럼 겨냥하고 사격할 수 있었다. **1961년 10월**에는 뉴욕 현대 미술관 MoMA에서도 그녀의 전시를 개최했다.



Niki de Saint Phalle during the exhibition *Les Nouveaux Réalistes*, Neue Galerie, Kunstler Haus, Munich, 10 February 1963 / <Les Nouveaux Réalistes(누보 레알리스트)> 전시에서 니키 드 생팔, Neue Galerie, Kunstler Haus, 뮌헨, 1963년 2월 10일 © Keystone Press / Alamy Banque d'Images



The Stravinsky fountain by Niki de Saint Phalle, Paris, France / 니키 드 생팔의 The Stravinsky fountain(스트라빈스키 분수), 파리 프랑스 © Panoramas via Flickr

A female mythology

1963 - 1972

In **May 1963**, Niki de Saint Phalle and her partner, Jean Tinguely bought "L'Auberge du Cheval Blanc" in Essonne. She was very concerned by the traditional status of women in society and created a series of sculptures featuring witches, prostitutes and parturient women. To her, all those women stood as sacrificed goods, prisoners of a role that was imposed on them.

Niki de Saint Phalle went back to New York in **1964** and created a series of sculptures-collages sporting hearts and dragons; they would later become *Nanas*. The pregnancy of her friend Clarice Rivers, the wife of painter Larry Rivers, inspired Niki de Saint Phalle for her first *Nanas*; they were showcased at Galerie Alexandre Iolas in Paris, first in fabric and wool, then in polyester and painted plaster.

In **1967**, the Stedelijk Museum in Amsterdam presented *Les Nanas au pouvoir* ("Nana Power"), Niki de Saint Phalle's first museum exhibition. The public discovered the first *Nana Dream House*, *Nana Fountain*, as well as plans for *Nana Town*.

In **1971**, after *Nanas and Devouring Mothers*, the artist's stance on women began to change and got more critical. That same year, she married Jean Tinguely.

Art for all

1972 - 2002

Niki de Saint Phalle then directed her first feature, *Daddy*, an autobiographical film that symbolised a psychoanalytic reckoning with her father. Peter Whitehead, an influential counter-culture filmmaker, helped her with that project.

In **1974**, Niki de Saint Phalle installed three giant *Nanas* in Hanover, Germany. She also reunited with Marella Agnelli, a friend she had met in the 1950s, and told her about her



Niki de Saint Phalle at the Stedelijk Museum, Amsterdam, The Netherlands, 1967 / 시립 미술관에서 니키 드 생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1967 © Jack de Nijs

여성에서 신화로

1963 - 1972

1963년 5월 생팔은 연인 관계이던 텅겔리와 함께 프랑스 에손에 위치한 여관 ‘백마의 여인숙’을 구입했다. 생팔은 사회 속에서 여성에게 전통적으로 부여한 지위들에 아주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마녀, 창부, 출산하는 여성 등을 선보이는 여러 개의 조각 작품을 만들었다. 그녀는 이런 여성들을 제물로 바쳐진 상품이자 강제로 부여된 역할 안에 갇힌 일종의 죄수로 보았다.

1964년 생팔은 뉴욕으로 돌아가 하트 모양과 용을 주제로 한 조각-콜라주 연작을 제작했는데 이들은 곧이어 제작될 《나나》 연작의 서막이었다. 화가 래리 리버스 Larry Rivers의 아내 클래리스 리버스 Clarice Rivers는 생팔의 친구였는데 클래리스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여기로부터 영감을 받아 첫 《나나》 작품들을 제작하고 알렉상드르 이올라 갤러리에서 이들을 발표했다. 초기 《나나》들은 섬유와 양모로 만들었으나 곧 폴리에스테르와 석고 채색으로 재료를 전환한다.

1967년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은 생팔의 전시 《나나의 힘 Nana Power》을 개최했다. 이는 미술관에서 열린 생팔의 첫 전시였다. 이 전시에서 최초의 《나나 드림하우스》와 《나나 분수》가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그 외에도 《나나 마을》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나나》와 《파멸의 어머니들 Devouring Mothers》의 제작을 마친 **1971년**을 기점으로 여성에 대한 생팔의 태세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고 점차 급박함을 띠게 된다. 한편, 같은 해 생팔은 텅겔리와 결혼했다.

모두를 위한 미술

1972 - 2002

생팔은 곧이어 감독으로 그녀의 첫 장편영화인 《대디 Daddy》를 촬영했다.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에 내리는 정신분석학적 심판의 성격을 띤 이 자전적인 영화는 대항문화 진영의 영향력 있는 영화인이었던 피터 화이트헤드 Peter Whitehead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다.

architectural dream: a sculpture garden. Carlo and Nicola Caracciolo, Marella's brothers, offered Niki de Saint Phalle a piece of land in Tuscany so that she could carry out her colossal project. The self-financed work started in 1978 and lasted for twenty years. It was to become the *Tarot Garden*.

In **1980**, Niki de Saint Phalle launched her first collections of furniture and decorative objects, which enabled her to finance her project in Tuscany. The Centre Pompidou organised the artist' first retrospective that same year.

In **1983**, Niki de Saint Phalle created the *Stravinsky Fountain* in Paris with Jean Tinguely, evoking Igor Stravinsky's musical work.

From **1984** to **1990**, while building the *Tarot Garden*, Niki de Saint Phalle was actively involved in the fight against AIDS. She wrote the book *AIDS: You Can't Catch It Holding Hands* with Silvio Barandun and illustrated the cover. She was deeply affected by the death of her friend and assistant Ricardo Menon, who died of AIDS; she decorated his grave in the Montparnasse cemetery with a cat so that "all the cats (would) come and visit him." In 1990, she also made an animated film based on her book with the help of her son Philip Mathews.

In **1994**, she published a memoir, *Mon secret*, for her daughter Laura, in which she revealed that she had been raped by her father at the age of eleven. The book was intended to free Niki de Saint Phalle from the trauma that had plagued her life. It showed how art had become therapeutic for her.

The Niki de Saint Phalle Museum opened in Nasu, Japan, that same year.

The *Tarot Garden* was officially opened to the public in **May 1998**. It consisted of 22 monumental sculptures, inspired by the Major Arcana of the divinatory tarot.

Between **2000** and **2001**, Niki de Saint Phalle bequeathed a large part of her work to the Sprengel Museum in Hanover and to the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Nice.

On **25 May 2002**, Niki de Saint Phalle died of chronic respiratory failure at the age of 71 in San Diego, California.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was created by the artist, but only became officially active after her death. Its role is to preserve and respect the work of Niki de Saint Phalle. It also participates in the dissemination of her works, by lending the artist's personal collection.



The Tarot Garden by Niki de Saint Phalle, Capalbio, Italy / 니키 드 생팔의 타로 공원, 카발비오, 이탈리아 © Jean-Pierre Dalbéra via Flickr

1974년, 생팔은 독일 하노버에 세 개의 거대 《나나》 조각상을 설치하였다. 이외에도 1950년대에 친구가 되었던 마렐라 아그넬리 Marella Agnelli와 재회했는데 이 때 아그넬리에게 자신의 조각 공원을 만들고 싶다는 자신의 건축학적인 꿈을 공유했고 이에 아그넬리의 남자 형제들이었던 카를로 카라치올로 Carlo Caracciolo와 니콜로 카라치올로 Nicola Caracciolo가 생팔의 창대한 기획을 위해 이탈리아 토스카나에 있는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다. 생팔이 스스로 비용을 집행한 이 프로젝트는 1978 년에 시작해 무려 20년의 시간을 소요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타로 정원》이었다.

1980년 니키 드 생팔은 그녀의 첫 번째 가구 및 장식품 컬렉션을 제작하였고, 이는 그녀가 토스카나에서 경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같은 해 폼피두 센터에서는 작가의 첫 번째 회고전이 열렸다.

1983년 니키 드 생팔은 장 텅겔리와 함께 프랑스 파리의 한 공공분수에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을 연상시키는 작품《스트라빈스키 Stravinsky》를 설치하였다.

《타로 정원》을 한창 제작 중이던 **1984년부터 1990년** 사이 생팔은 에이즈 퇴치 운동에서 활발한 역할을 가져간다. 실비오 바란둔 Silvio Barandun과 함께 책 《에이즈: 손을 잡는다고 걸리지는 않아요 AIDS: You Can't Catch It Holding Hands》를 공저하며 책의 표지 일러스트를 맡았다. 친구이자 어시스턴트였던 리카도 메논 Ricardo Menon이 에이즈로 사망한 것에 무척 비통해했고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메논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의 무덤에 고양이 조각상을 세웠다. 1990년에는 아들 필립 매튜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책에 기반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1994년에는 딸 로라를 위해 회고록《나의 비밀 Mon secret》을 출판하는데 이 책에서 아버지에게 11살의 나이에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다. 평생 지독히 괴롭혀 온 트라우마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기 위해 쓰여진 이 책은 미술이 어떻게 그녀에게 치료가 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기도 했다.

같은 해, 일본의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나스에 니키 드 생팔 미술관이 개관하였다.

1998년 5월 타로 공원은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점술 타로인 《메이저 아르카나 Major Arcana》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든 22개의 기념비적인 조각 작품이 설치되었다.

2000년과 2001년 간에 생팔은 그녀의 작품 중 다수를 하노버 슈프렐겔 미술관 Sprengel Museum과 니스 근현대미술관 MAMAC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Nice에 기증했다.

2002년 5월 25일 생팔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71세의 나이로 작고했다. 사인은 만성호흡부전이었다.

생전에 니키 자선예술재단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의 설립을 직접 이끌었으나 재단의 발족이 이루어진 건 그녀가 이미 죽은 후였다. 재단은 생팔 작품의 보존과 지속적인 존중을 목적으로 하며 생팔의 작가 소장 작품을 대여함으로써 그녀의 작품세계를 널리 알리는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To Start Again Like a Child

Karel Appel & Niki de Saint Phalle

Niki's Animals

니키의 동물들

Niki striking a pose in her studio at Soisy, France
루앙시-쉬르-센에 위치한 스튜디오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니키, 프랑스
© Photographer Laurent Condominas

White Tree

1972

나무 패널에 레진 폴리에스터
Resin polyester assembled on wood panel
Unique piece

244,5 x 122 x 22 cm | 96.3 x 48 x 8.7 in

PROVENANCE

Alexander Iolas Gallery, New York, United States
Collection of Brooks Jackson Inc., New York, United States
Galerie Samy Kenge, Paris, France
Private collection, United Kingdom
Galerie Mitterrand, Paris, France
Private collection

LITERATURE

Niki de Saint Phalle, Catalogue raisonné, vol. 1, 1949-2000,
Acatos (Publisher), Lausanne, 2001, p. 253, no. 548, ill. in colour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The tree is the heart of the myth, be it a plant or an animal, a trunk or a snake. It is the emblem of the great nature, it is body and spirit, the knowledge of life¹". That's how Niki de Saint Phalle described the *Tree of Life* from her *Tarot Garden*. The tree was an important symbol for the artist, who was probably inspired, among other representations, by the bas-relief adorning the sarcophagus of King Pakal in Palenque, which she discovered during a trip to Mexico. A symbol of the cosmic centre in the four great religions, the tree has its roots in the subterranean realm governed by uncontrollable forces and raises its branches towards the luminous world of consciousness². Niki de Saint Phalle placed the tree of life at the centre of the *Tarot Garden*,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path to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White Tree*, an element of the artist's Garden of Eden, is composed of a myriad of small figures in relief: skulls, spiders and monstrous creatures that represent respectively the ephemeral condition of existence and the passage of time, the artist's mother and the evils of humanity. The piece is topped by a moon which symbolises the richness of our unconscious and our imagination. The plaster that covers *White Tree* recalls the immaculate white surfaces of the artist's "Shots" from the 1960s, before the explosion of the bags of paint hidden behind the canvas, as well as the subsequent period, during which many of her works were entirely painted in white.

“나무는 모든 신화의 중심이에요,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줄기이든 혹은 뱀이든, 그 어느 것의 이야기일지라도. 결국 나무는 대자연의 상징이며, 육체와 정신 그리고 삶의 지식, 그 자체로 존재하죠.”¹ 이것이 타로 공원 속 생명의 나무에 대한 생팔의 설명이다. 생명의 나무는 그녀에게 있어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아마 멕시코를 여행하는 동안 보았던 마야 문명의 유적지-팔렌케 Palenque 를 다스리던 황제 파칼 Pakal의 석관을 장식한 부조 문양으로부터 받은 영감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4대 종교 속에서 세상의 중심을 상징하는 나무는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지배되는 땅 아래 지하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한 동시에 어둠 속 빛나는 의식의 세계를 향해 높게 가지를 뻗어 나간다.² 니키 드 생팔은 타로 공원의 중심에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길의 시작점으로써 이 생명의 나무를 위치시켰다. 생팔의 에덴 동산을 이루는 요소인 하얀 나무는 무수히 많고 작은 부조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골, 거미 그리고 괴생물체, 이들은 각각 덧없이 짧은 찰나의 존재와 시간의 흐름, 작가의 어머니 그리고 인간 존재의 악함을 상징한다. 또한, 작품의 상단에는 우리의 무의식과 상상력의 무한함을 상징하는 달 형상을 장식하였다. 하얀 나무를 덮고 있는 석고는 마치 1960년대 생팔의 작품 사격 연작에서 캔버스 뒤에 숨겨진 물감 주머니들이 터지기 전의 매우 깨끗한 흰색 표면의 상태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작품의 전체를 하얗게 칠했던 그녀의 후기 작품들을 떠오르게 한다.

1. Les Grands Entretiens : Niki de Saint Phalle, French-speaking Switzerland TV show, 1999
2. Jean Chevalier, Alain Gheerbrant, *Dictionnaire des symboles*, Robert Laffont, Paris, 1982

1. Les Grands Entretiens : Niki de Saint Phalle, 프랑스어로 방송되는 스위스 TV 프로그램, 1999
2. Jean Chevalier, Alain Gheerbrant, *Dictionnaire des symboles*, Robert Laffont, 파리,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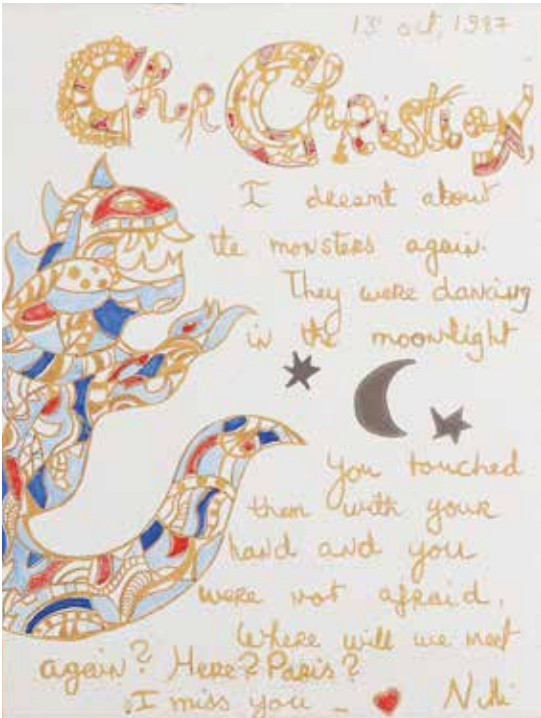
Lettre à Christian
1987

채색된 나무 패널에 거울, 채색된 세라믹, 과슈
Mirror, painted ceramic, gouache on painted wood panel
Signed, dated and inscribed '13 Oct, 1987 Niki' on the lower left

85 x 100 cm | 33.5 x 39.4 in

PROVENANCE
Estate of Christian Dumonteil
Private collection, California, United States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Detail of Lettre à Christian, 1987



Dragon

1979

폴리에스터 레진, 아크릴
Polyester resin and acrylic
Edition of 10 + 2 AP
Signed and numbered 'Niki de Saint Phalle, 10/10'
on the bottom

18 x 30,5 cm | 7 x 12 in

PROVENANCE

Arij Gasiunasen Gallery, Palm Beach, United States
Private collection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Monsters are recurring figures of Niki de Saint Phalle's imaginary bestiary. This theme, and everything related to what is strange, runs through her work and bears witness to a dark aspect of her art. Those monsters had haunted the artist's dreams since her childhood. In the 1960s, Niki's bas-reliefs were populated by gigantic dinosaurs attacking people and cities (*King Kong*, 1962). The monsters reappeared in the 1970s yet in a less threatening manner, with more colours and a seemingly joyful appearance. They even became a source of amusement for children: the *Golem* (1972, Jerusalem), the *Dragon of Knokke* (1973-75, Knokke-le-Zoute, Belgium) or the *Loch Ness Monster* (1993,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of Nice). In the *Tarot Garden*, the Strength card (card n°XI) is symbolised by a young girl holding a ferocious dragon with an invisible leash. Niki de Saint Phalle explained that "the monster the girl must overcome is inside herself. She must conquer her own demons. Through this difficult ordeal she will discover her own strength." Like that girl, the artist tried and tamed her dragons, her own inner monsters, particularly through her art. This little dragon made of painted polyester is in keeping with the iconography of the monsters Niki de Saint Phalle illustrated. She made it a small object with almost childlike features, which is both very colourful and easy to grasp. That inner monster had been tamed. Animals thus have a dual role in Niki de Saint Phalle's work: they embody the artist's anxieties and the possibilities of overcoming them.

괴물은 니키 드 생팔의 상상 속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생물체이다. 이 동물 우화의 주제와 기묘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그녀의 작업을 관통하며 생팔의 예술 속 어두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 괴물들은 어린 시절부터 생팔의 꿈속에 등장하였으며, 1960년대 니키의 부조 작품들은 사람과 도시를 공격하는 거대한 공룡 형상으로 가득 차 있다 (킹콩 *King Kong*, 1962). 괴물은 1970년 대에 이르러 그녀의 작품 속에 다시 등장했는데, 전과는 달리 덜 위협적인 형상을 한 채 보다 다채로운 색을 표현하였으며 즐거움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후에 골렘 *Golem*(1972, 예루살렘), 크노케 헤이스트의 용 *Dragon of Knokke*(1973-75, 크노케 헤이스트, 벨기에), 네스호의 괴물 *Loch Ness Monster*(1993, 프랑스 니스 현대미술관) 등의 작품 속에서 어린 감상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되었다. 타로 공원에서 힘을 뜻하는 카드(카드 넘버 11)는 보이지 않는 목줄로 사나운 용을 다루는 어린 소녀로 상징된다. 니키 드 생팔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녀가 극복해야 할 괴물은 그녀의 안에 있어요. 그녀는 내면 속 악마를 이겨내야 해요. 이 고통스러운 시련을 지나면 자신 스스로가 가진 힘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그러했던 것처럼 생팔 역시 예술을 통해 그녀의 내면 속 괴물인 용을 길들였다. 채색된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작은 용은 니키 드 생팔이 이야기하는 괴물을 의미한다. 그녀는 용을 소형 오브제로 조각하였는데, 이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매우 화려한 색을 가졌으며 쉽게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작은 형태를 하고 있다. 이처럼 생팔 내면의 괴물이 마침내 그녀의 손안에서 길들여진 것이다. 생팔의 작품 속에서 동물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들은 작가가 가진 극도의 불안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가능성을 상징한다.





Green Goddess

1990

레진에 채색
Painted resin
Edition of 8
Numbered and signed '6/8 / Niki de Saint Phalle' on a
metal plaque, with the Haligon foundry stamp on the foot

102 x 30 x 69 cm | 40.2 x 11.8 x 27.2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Sphinx 1990

채색된 폴리에스터에 금박
Painted polyester with gold leaf
Edition of 10
Signed and numbered '3/10 Niki de Saint Phalle'
and stamped 'Résines R. Haligon d'Art' on the bottom

28 x 43 x 29 cm | 11 x 16.9 x 11.4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Sotheby's, London, 30 June 2000, lot 207
Russeck Gallery, Palm Beach, United States
Collection of Gerard L. Cafesjian, New York, United States
Private collection, Paris,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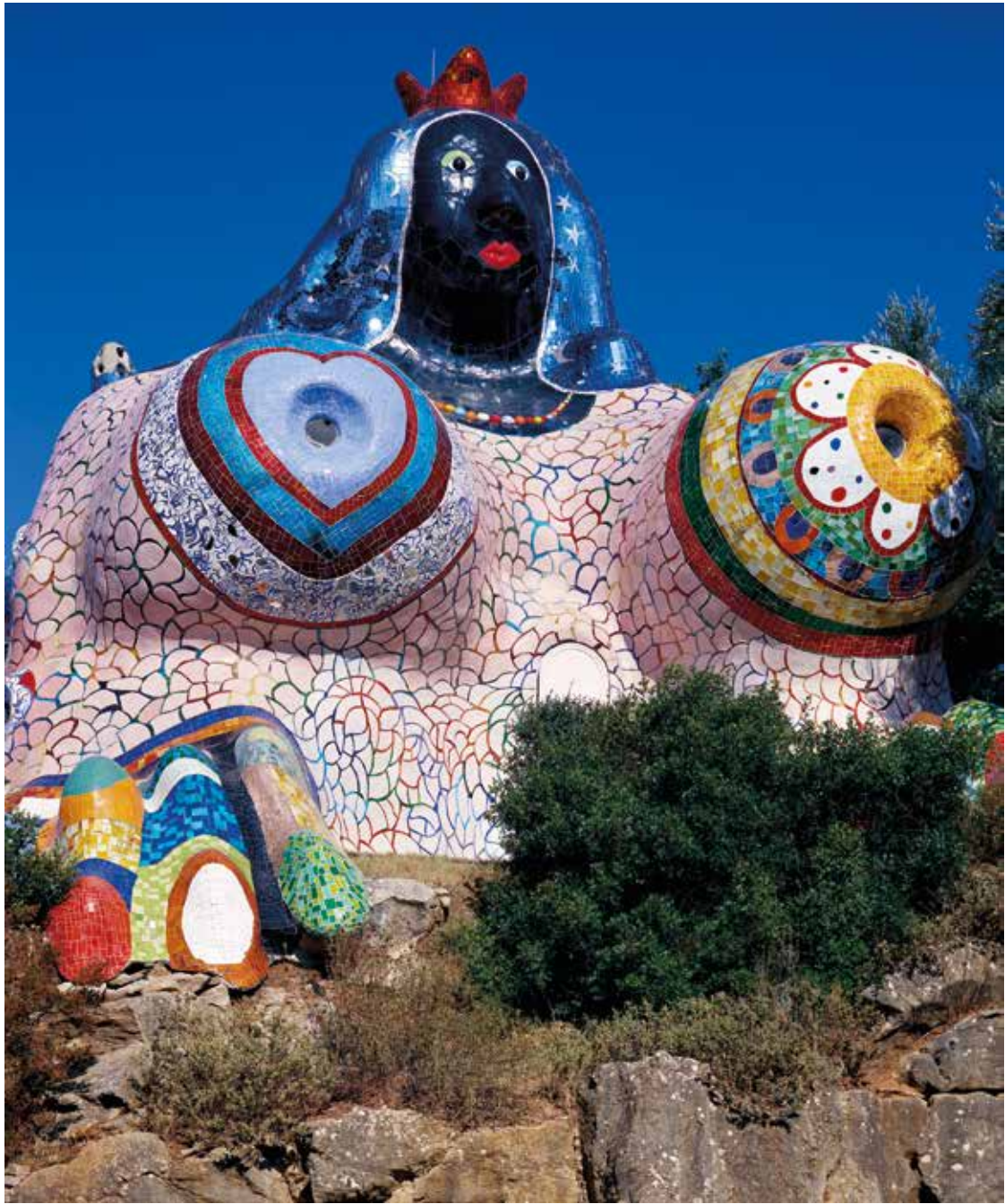
LITERATURE

Stefano Cecchetto (ed.), *Niki de Saint Phalle*, Skira
(Publisher), Milano, 2009,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ill. in colour p. 128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The female sphinx is a fantastic creature with the bust of a woman, the wings of a bird and the body of a lion. Niki de Saint Phalle chose that oracular animal to represent the Empress card (card n°III), her masterpiece in the *Tarot Garden*. She used the interior of the female sphinx as her home and studio for many years and would later say: *"I wanted to invent a new mother, a mother goddess and be reborn in her forms"*. The artist drew inspiration from the sphinxes found in Greek and Egyptian iconographies and also turned to the artistic heritage of neighbouring Italian cities. The Empress' mantle, which is adorned with a blue star-dotted mosaic, is an allusion to Giotto's "Sky" - that is painted on the ceiling of the Basilica of Saint Francis of Assisi -, while the ceramic tesserae that cover it feature the profile of Botticelli's *Venus*, which is kept at the Uffizi Galleries in Florence.

여성 스피ング스는 인간 여자의 상반신, 새의 날개 그리고 사자의 몸을 가진 환상 속 생명체이다. 니키 드 생팔은 여황제를 상징하는 타로 카드(카드 넘버 3)를 재현하기 위해 스피ング스 형태의 생명체를 선택했고, 이렇게 탄생한 그녀의 작품은 타로 공원에 설치되었다. 생팔은 꽤 오랜 시간 이 여성 스피ング스 형상의 내부 공간을 그녀의 집이자 작업실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나는 지모신이라 불릴 수 있는 새로운 모성의 주체를 만들고 싶었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그 형태로서 다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리스와 이집트 역사에 기록된 스피ング스 도상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생팔만의 새로운 스피ング스는 이탈리아 도시의 예술적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여황제의 망토를 수놓은 푸른 별 모자이크 무늬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 Basilica of Saint Francis of Assisi의 천장에 그려진 조토 티 본도네 Giotto di Bondone의 벽화 하늘 sky를 상징하며, 이를 이루는 세라믹 테세라는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산드로 보티첼리 Sandro Botticelli의 작품 속 비너스의 옆모습을 특징으로 한다.



The Empress, Tarot Garden, Capalbio, Italy / The Empress(여황제), 타로 공원, 카발비오, 이탈리아
© Laurent Condominas



Chat (bleu violet)

Circa 1965

유리섬유에 채색
Painted fiberglass
Unique piece
Dedicated 'Niki de Saint Phalle pour Jean ♥ Pierre'
around the tail

94,5 x 101 x 64 cm | 37.2 x 39.8 x 25.2 in



Niki de Saint Phalle in her studio / 스튜디오에서 니키
© Jack Nisberg / Roger-Viollet

PROVENANCE

Colette Creuzevault collection, Paris, France
Galerie Jean-Marc Lelouch, Paris, France
Private collection

EXHIBITED

Paris, Galeries Nationales du Grand Palais, *Niki de Saint Phalle 1930-2002*, 17 September 2014 - 7 February 2015
Bilbao, Guggenheim Museum, *Niki de Saint Phalle 1930-2002*, 27 February - 7 June 2015

LITERATURE

Camille Morineau, *Niki de Saint Phalle 1930-2002*, exhibition catalogue, Réunion des Musées Nationaux (publisher), Paris, 2015, ill. in colour pp. 310 et 311 (a photograph by Shunk-Kender)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Chat

1991

레진에 채색
Painted resin
Edition of 8
Signed and numbered 'Niki de Saint Phalle 3/8'
and stamped 'Résines R. Haligon d'Art' under the tail

126 x 133 x 71 cm | 49.6 x 52.4 x 28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Grand chameau vase 1991

레진에 채색
Painted resin
Edition of 3
Numbered and signed '1/3, Niki de Saint Phalle'
and stamped 'Résines R. Haligon d'Art'
on the lower part of the right rear leg

97 x 170 x 45 cm | 38.2 x 66.9 x 17.7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Paris, France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Le Chameau 1986

레진에 채색
Painted resin
Edition of 50
Numbered and signed '1/50 / Niki de Saint Phalle'
on a plaque under the rear leg; stamped 'Résines R.
Haligon d'Art' under the front leg

24 x 40 x 10 cm | 9.4 x 15.7 x 3.9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Homme lisant sur un serpent
(Serpent and Daddy)**
1980

레진에 채색
Painted resin
Edition of 10
Signed, dated and numbered 'Niki de Saint Phalle 1980 1/10'
on the bottom

14 x 23 x 20,5 cm | 5.5 x 9 x 8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New York, United States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Obélisque serpents

1987

레진에 채색
Painted resin
Edition of 10 + 4 AP
Signed and numbered 'Niki de Saint Phalle 9/10'
and stamped 'Résines R. Haligon d'Art' on the bottom

30 x 14 cm | 11.8 x 5.5 in



PROVENANCE

Artur Jorge collection, Portugal
Christie's, Paris, 8-9 December 2010, lot 175
Private collection

EXHIBITED

Ulm, Ulmer Museum, *Niki de Saint Phalle : Liebe, Protest, Phantasie*, 26 September - 21 November 1999
Ludwigshafen am Rhein, Wilhelm-Hack Museum, *Niki de Saint Phalle : Liebe, Protest, Phantasie*, 26 March - 14 May 2000

LITERATURE

Suzanne Pfleger, Pierre Restany, Bettina Scheeder, Barbara Regina Renftle and Dagmar Rinker, *Niki de Saint Phalle : Liebe, Protest, Phantasie*, Ulmer Museum / Wilhelm-Hack Museum Ludwigshafen am Rhein, 1999, another edition ill. in colour p. 64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Shamu - You Are My Killer Whale (Remembering)

1997

레진에 채색
Fiberglass and painted polyester
Edition of 5, each work unique (painted by hand)
Signed 'Niki de Saint Phalle' along the pectoral

81,2 x 142,2 x 15,2 cm | 32 x 56 x 6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Switzerland, 1998
(acquired directly from the artist)

EXHIBITED

San Diego, Mingei International Museum, *Niki de Saint Phalle - Insider/Outsider, World Inspired Art*, 1998,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ill. in colour p. 118
Köln, Galerie Delaive, Mess, 1998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LITERATURE

Niki de Saint Phalle, Catalogue raisonné, vol. I, 1949-2000, Acatos (Publisher),
Lausanne, 2001, p. 304, no. 667,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ill. in colour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Oiseau amoureux (Cerf-volant / Kite)

Circa 1988

일본 닥종이에 수채, 크레용, 아크릴, 실크 배접
Watercolour, coloured crayon and acrylic on Japanese paper
laid down on silk
Kite executed by M. Yamagushi
Unique piece

260 x 285 cm | 102.4 x 112.2 in

PROVENANCE

Dr Paul Eubel, Germany

EXHIBITED

Sendai, Miyagi, Art Museum, 11 June - 10 July 1988
Mie, Tsu, Art Museum, 30 July - 3 November 1988
Shiga, Museum of Modern Art, 22 October - 11 December 1988
Himeji, State Museum of Art, 3 - 28 March 1989
Gunma, Hara Museum Arc, 15 April - 4 June 1989
Nagoya, State Museum of Art, 5 September - 1 October 1989
Hiroshima, State Museum of Modern Art, 10 October -
12 November 1989
Shizuoka, Museum of Modern Art, 23 July - 27 August 1989
Munich, Haus der Kunst, 16 December 1989 -
18 February 1990
Paris, Grande Halle de la Villette, *L'Art prend l'air:
Cerfs-volants d'artistes*, 24 April - 1 July 1990
Düsseldorf, Kunstsammlung Nordrhein-Westfalen,
13 July - 6 September 1990
Moscow, Centralim Dom, 20 September - 21 October 1990
Hamburg, Deichtorhalle, 3 November - 7 December 1990
Lisbon, Gulbenkian Foundation, 21 December 1990 -
27 January 1991
Brussels, Musée des Beaux-Arts, 7 February - 7 April 1991
Berlin, Nationalgalerie, 28 June - 11 August 1991
Copenhagen, Charlottenburg Castle, 24 August -
29 September 1991

Turin, Promotrice delle Arti, 19 October - 8 December 1991
Turin, Galleria Nazionale d'Arti
Roma, Galleria Nazionale d'Arte Moderna, 5 March -
17 May 1992
Sevilla, Expo 92, 4 - 26 June 1992
Kassel, Documenta-Halle, 1992
Montreal, Musée des Beaux-Arts, 11 June -
26 September 1993
Sydney, Darling Harbour Exhibition Hall, 1994
Lübeck, Holstentorhalle, MuK, Petrikirche, 1995
Buenos Aires, 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1995
Montevideo, Museo Nacional de Artes Visuales, 1996
Detmold, Fliegerhorst, Hohenloh, 1997
Luxemburg, Halle Victor Hugo, 1998
Detmold, Art kite Museum, 1999 - 2005

LITERATURE

Paul Eubel, *Pictures for the sky, Art Kites*, Goethe Institute
Osaka, 1988, ill. in colour p. 315
Paul Eubel, *Bilder für den Himmel*, Detmold : Art Kite
Museum - Museum für Kunstdrachen, 2000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L'Oiseau amoureux

1990-1992

폴리에스터에 채색
Painted polyester
Edition of 3
Signed and numbered 'Niki de Saint Phalle 1/3' on the foot,
with the Haligon foundry stamp

155 x 150 x 60 cm | 61 x 59.1 x 23.6 in

PROVENANCE

Artist's studio
Galerie Jamileh Weber, Zurich, Switzerland
Private collection, Switzerland, 1994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My work is filled with birds, be they immortal, sad, triumphant or starving. Birds stand as messengers from our world to the other. My guardian angel is a bird." - Niki de Saint Phalle

A symbo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rth and sky, of lightness and freedom from gravity, birds oppose snakes, i.e. the image of the earthly world.

They also remind Niki de Saint Phalle of angels, of the quest for a state of grace: *"Am I a caged bird?" or "Whenever I draw its wings, I breathe again"*. That very motif recurred throughout her career.

“나의 작품은 새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불멸의 삶을 살고 있으나 슬픔에 젖어 있고,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지만 굴주리고 있어요. 새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또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이며, 나에게는 수호천사이죠. 1” - 니키 드 생팔
대지와 하늘 사이의 관계, 가벼움 그리고 중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하는 새는 세속적인 세상을 뜻하는 뱀과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다. 새들은 또한 니키 드 생팔에게 천사들을 연상시키며 은총을 찾아가는 탐구를 상징한다. 그녀는 자신에게 "나는 새장에 갇힌 새 인가?" 또는 "새의 날개를 그릴 때마다, 나는 다시 숨을 쉬게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2 이러한 모티프는 그녀의 예술 활동 동안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였다.



1. <https://frbourg.wordpress.com/2011/05/22/le-bestaire-de-niki-de-Saint-Phalle/>
2. Niki de Saint Phalle, *Harry and me. The Family Years, 1930-1960*, Zurich, Benteli, 2006

1. <https://frbourg.wordpress.com/2011/05/22/le-bestaire-de-niki-de-Saint-Phalle/>
2. 니키 드 생팔, *Harry and me. The Family Years, 1930-1960*, 취리히, Benteli, 2006



Niki de Saint Phalle in her studio / 스튜디오에서 니키
© Jean-Régis Roustan / Roger-Viollet

To Start Again Like a Child

Karel Appel & Niki de Saint Phalle

The Nanas

나나 연작

La Fontaine aux 4 Nanas, les quatre baigneuses

1988-1990

레진에 채색
Painted resin
Edition of 150
Numbered and signed '2/150 / Niki de Saint Phalle'
on a metal plaque, with the Haligon foundry stamp
on the bottom

14 x 50 x 46 cm | 5.5 x 19.7 x 18.1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Running Nana

1966

채색된 파피에 마세
Painted papier-mâché
Unique piece

71 x 72,5 x 39 cm | 28 x 28.5 x 15.4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Switzerland
Dagny and Jan Runqvist collection, Geneva, Switzerland
Christie's, Paris, 2 December 2014, lot 1
Private collection

EXHIBITED

Nice, Musée d'Art Moderne et Contemporain, *Niki de Saint Phalle : la donation*, 17 March - 27 October 2002, ill. in colour p. 220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I am Upside Down, Green (Remembering)

1997

폴리에스터 레진에 아크릴
Acrylic on polyester resin
Edition of 5, each work unique

117 x 80 x 14 cm | 46.1 x 31.5 x 5.5 in

PROVENANCE

Tasende Gallery, La Jolla, United States
Private collection

EXHIBITED

San Diego, Mingei Museum, *Niki de Saint Phalle, Insider / Outsider - World Inspired Art*, 1998,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ill. in colour p. 117

LITERATURE

Niki de Saint Phalle, Catalogue raisonné, vol. I, 1949 - 2000,
Acatos (Publisher), Lausanne, 2001, p. 294, no. 645,
ill. in colour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Do You Like My New Dress, Black (Remembering)

1997 - 2000

유리섬유, 채색된 폴리에스터
Fiberglass and painted polyester
Edition of 5, each work unique
Signed with artist's signature on the right foot

99 x 55,8 x 10,1 cm | 39 x 22 x 4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Christie's, New York, 14 November 2002, lot 184
Private collection

EXHIBITED

Amsterdam, Galerie Delaive, *Niki de Saint Phalle*, 1998
San Diego, Mingei International Museum, *Niki de Saint Phalle - Insider/ Outsider - World Inspired Art*, 1998, another edition ill. in colour p. 3

LITERATURE

Niki de Saint Phalle, Catalogue raisonné, vol. I, 1949 - 2000, Acatos (Publisher), Lausanne, 2001, p. 292, no. 641, ill. in colour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Niki de Saint Phalle created her first *Nanas* in 1964, at a time when the American civil rights movement was gaining momentum. Her first black *Nana*, named Black Rosy, was created the following year, as a tribute to Rosa Parks. Niki de Saint Phalle thus expressed her solidarity towards the oppressed and celebrated black women, both as *Nanas* and as marginalised people. "How many black sculptures have I made? Hundreds? Why do I, a white woman, create black sculptures? I identify with anyone who's an outsider, who has been persecuted by society in one way or another. Black is me, black people are me!"¹. She moreover drew a parallel on that very topic in 1969, asking the following question: "There's Black Power, so why not launch Nana Power?"²

1964년 니키 드 생팔은 그녀의 첫 나나를 제작하였는데, 당시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였다. 블랙 로지 Black Rosy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의 첫 번째 흑인 나나는 미국의 여성 흑인 인권 운동가로 잘 알려진 로자 파크스 Rosa Parks 에 대한 찬사였다. 이처럼 니키 드 생팔은 스스로를 나나이자 소외된 사람 중 하나로써 억압받는 흑인 여성들과 연대하고 있음을 표현했다. "내가 만든 흑인 조각 작품은 몇 개나 될까요? 수백 개? 나는 어떠한 이유로 흑인 조각 작품을 만들고 있을까요? 나는 주변의 소외된 이 혹은 사회에 의해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자들과 나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검은색은 나를 상징하고, 흑인은 '나'인 것이죠."¹ 1969년 마침내 그녀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블랙 파워 Black Power가 있는데, 나나 파워 Nana Power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²

1. Niki de Saint Phalle, quoted by Catherine Francblin, *Niki de Saint Phalle, la révolte à l'œuvre*, Paris, Hazan, 2013, p. 389.
2. Niki de Saint Phalle quoted by C. Phelan, The Houston Post, Texas, March 25th, 1969.

1. 니키 드 생팔, Catherine Francblin 인용, *Niki de Saint Phalle, la révolte à l'œuvre*, Paris, Hazan, 2013, p. 389.
2. 니키 드 생팔, C. Phelan 인용, The Houston Post, 텍사스, 1969년 3월 25일

Collaboration (Remembering)

1998

유리섬유, 채색된 폴리에스터
Fiberglass and painted polyester
Edition of 5, each work unique
Signed, numbered and dated 'Niki de Saint Phalle 2/5 1998'
on the left

84 x 74 x 13 cm | 33 x 29 x 5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acquired directly from the artist in 1998)
Private collection, Switzerland

EXHIBITED

San Diego, Mingei Museum, *Niki de Saint Phalle - Insider / Outsider*
- *World Inspired Art*, 1998, another edition ill. in colour p. 3
Bern, Kornfeld Gallery, *Niki de Saint Phalle*, 2001, list no. 10

LITERATURE

Niki de Saint Phalle, Catalogue raisonné, vol. I, 1949 - 2000,
Acatos (Publisher), Lausanne, 2001, p. 302, no. 661, ill. in colour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Nana vase

1984

레진에 채색
Painted resin
Edition of 150
Numbered and stamped '52/150 / Plastiques d'Art / R. Haligon'
on the bottom

47 x 30 x 28 cm | 18.5 x 11.8 x 11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Ange vase (Black)

1993

채색된 폴리에스터, 세라믹
Painted polyester and ceramic
Edition of 50 + 10 AP
Signed and numbered '12/50 / Niki de Saint Phalle' and
stamped 'Résines R. Haligon d'Art' inside the vase

99 x 57 x 32 cm | 39 x 22.4 x 12.6 in

PROVENANCE

Galerie Vogel Heidelberg, Germany
Private collection, Baden-Württemberg, Germany
Private collection, Paris, France
Galerie Mitterrand, Paris, France
Private collection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Ange vase (Red)

1993

채색된 폴리에스터, 세라믹
Painted polyester and ceramic
Edition of 50 + 10 AP
Signed and numbered '4/50, Niki de Saint Phalle' and
stamped 'Résines R. Haligon d'Art' inside the vase

99 x 48 x 30 cm | 39 x 18.9 x 11.8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Geneva (acquired directly from the artist)
Collection of the Fondation Linda and Guy Pieters,
Saint-Tropez, France
Private collection

EXHIBITED

Le Touquet-Paris-Plage, *Niki de Saint Phalle, La Liberté
à tout prix*, Musée du Touquet Paris Plage, 17 October 2020
- 24 May 2021, ill. in colour pp. 62-63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Lady with Handbag 2000

레진에 채색
Painted resin
Edition of 150
Signed and numbered 'Niki de Saint Phalle 63/150',
with the Haligon foundry stamp underneath the
removable vase

63 x 36 x 10 cm | 24.8 x 14.2 x 3.9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Niki sitting inside the *Empress* when she was living there, 1986
The Empress(여왕제) 안에서 거주하던 시절의 니키, 1986
© Laurent Condominas

To Start Again Like a Child

Karel Appel & Niki de Saint Phalle

The imaginary home

상상의 집



Le Miroir (Magie du miroir) 1980

거울, 채색된 폴리에스터, 나무
Mirror, painted polyester and wood
Edition of 20, each work unique
Signed and numbered 'Niki, 13/20' on the reverse

106 x 152 x 25,5 cm | 41.7 x 59.8 x 10 in

PROVENANCE

Galerie Bonnier, Geneva, Switzerland
Private collection, Geneva, Switzerland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Fauteuil noir

1980

폴리에스테르에 채색
Painted polyester
Edition of 20 + 4 AP
Signed and numbered 'Niki de Saint Phalle, 6/20'
and stamped 'Plastiques R. Haligon d'Art' on the bottom

102 x 79 x 70 cm | 40.2 x 31.1 x 27.6 in



Niki de Saint Phalle during the installation of her retrospective at the Centre Pompidou, Paris, 1980 / 뽀피두 센터에서 열린 작가 회고전을 위한 설치 중 니키 드 생팔, 파리, 1980
© Estate Leonardo Bezzola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EXHIBITED

Paris, Centre George Pompidou, *Rétrospective 1954 - 1980*, 1980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Paris, Galerie Samy Kinge, *Niki de Saint Phalle*, 1981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Geneva, Galerie Bonnier, *Niki de Saint Phalle : objets à apprivoiser*, 1981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Tokyo, Space Niki, Space Niki Collection, April - June 1986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Bonn, Museumsmeile, *Niki de Saint Phalle*, 1992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Ludwigshafen, Wilhelm-Hack-Museum, *Niki de Saint Phalle : Liebe, Protest, Phantasie*, 2000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Kunsthalle Emden, *Niki de Saint Phalle : Liebe, Protest, Phantasie*, 2000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Le Faucon bleu

1980

채색된 폴리에스터, 금속, 전구
Painted polyester, metal and light bulbs
Edition of 8 + 4 AP
Signed and numbered 'Niki, EA III/IV' on the base
and stamped 'Résines R. Haligon d'Art' on the leg

66 x 37 x 21 cm | 26 x 14.6 x 8.3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Switzerland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Clarice chaise femme

1981-1982

폴리에스터에 채색
Painted polyester
Edition of 20 + 6 AP
Signed and numbered 'Niki V/VI' and stamped 'Plastiques
R. Haligon d'Art' on the reverse of the back left leg

122 x 113 x 81 cm | 48 x 44.5 x 31.9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EXHIBITED

Montreal, Galerie Esperanza, *Sculptures et Lithographies*, 1983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Bonn, Kunst und Ausstellungshall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iki de Saint Phalle*, 19 June - 1 November 1992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Glasgow, McLellan Galleries, *Niki de Saint Phalle*, 22 January - 4 April 1993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Paris,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Niki de Saint Phalle*, June - September 1993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Regensburg, Kunstkabinett, *Niki de Saint Phalle*, 1996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Montreal, Musée des Arts Décoratifs, *Le Plaisir de l'objet*, 16 May - 2 September 1997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Hull, Musée Canadien des Civilisations, *Le Plaisir de l'objet*, 9 October 1997 - 15 February 1998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Ohio, Cincinnati Art Museum, *Le Plaisir de l'objet*, 15 March - 26 May 1998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Richmond, Virginia Museum of Fine Arts, *Le Plaisir de l'objet*, 16 November 1998 - 31 January 1999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Louisville, J.B. Speed Museum, *Le Plaisir de l'objet*, 8 March - 23 May 1999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Munich, Die Neue Sammlung, *Le Plaisir de l'objet*, July - September 1999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Cracow, Muzeum Narodowe w Krakowie, *Le Plaisir de l'objet*, November 1999 - January 2000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Pari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Le Plaisir de l'objet*, March - May 2000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Pari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Niki de Saint Phalle. La vie joyeuse des objets*, October - December 2001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San Diego, Mingei International Museum, *Niki de Saint Phalle Remembered*, December 2003 - April 2004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LITERATURE

Pontus Hultén (ed.), *Niki de Saint Phalle*, exhibition catalogue, Kunst und Ausstellungshall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McLellan Galleries, Glasgow &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ill. in colour p. 251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Martin Eidelberg, *Le Plaisir de l'objet : nouveau regard sur les Arts Décoratifs du XX^e siècle*, exhibition catalogue, Flammarion (publisher), 1997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Charly

1981-1982

레진에 채색
Painted resin
Edition of 20
Signed and numbered 'Niki 15/20' with the Haligon foundry stamp on the bottom side of the left back foot

109 x 119 x 74 cm | 42.9 x 46.9 x 29.1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Clarice and Charly armchairs

The *Clarice* armchair (page below) is named after Niki de Saint Phalle's close friend Clarice Rivers, the wife of the American painter Larry Rivers. Her pregnancy inspired Niki for her first *Nanas* in 1964. In the 1980s, Niki de Saint Phalle devoted herself to limited-edition pieces of furniture (chairs, lamps, mirrors) in collaboration with atelier Gérard Haligon, which was an expert in the use of synthetic resins. Clarice was conceived with a male counterpart, *Charlie*, who also was a friend of the artist.

클래리스와 찰리

의자 형태를 한 작품 클래리스(이전 페이지)는 니키 드 생팔의 친구이자 화가 래리 리버스 Larry Rivers의 아내 클래리스 리버스 Clarice Rivers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1964년 클래리스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여기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녀의 첫 번째 나나 작품을 제작하였다. 1980년대 니키 드 생팔은 합성 레진을 다루는 전문가 제라드 할리곤 Gérard Haligon 스튜디오와의 협업을 통해 에디션 가구(의자, 조명, 거울) 제작에 몰두하였고, 이때 클래리스의 짝인 남성 피사체 역시 생팔의 친구인 찰리 Charlie의 이름에서 시작되었다.



Head

1967-1968

파피에 마세와 철망에 아크릴
Acrylic on papier-mâché and chicken wire
Unique piece
Titled 'Drôle de tête' on the bottom

76.5 x 55 x 63 cm | 30.1 x 21.7 x 24.8 in



PROVENANCE

Ad Libitum Gallery, Antwerp, Belgium
Collection Le Jeune, Antwerp, Belgium, 1969
Private collection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La Conversation 1991

레진에 채색
Painted resin
Edition of 20
Signed and numbered 'Niki de Saint Phalle 1/20 '
on a metal plaque, with the Haligon foundry stamp
on the lower side next to the tail

105 x 153 x 90 cm | 41.3 x 60.2 x 35.4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Lampe angulaire

1992

채색된 폴리에스터, 금속, 전구
Painted polyester, metal, and light bulbs
Edition of 7
Signed and numbered 'Niki de Saint Phalle 2/7'
and stamped 'Résines R. Haligon d'Art' on the back

198 x 124 x 50 cm | 78 x 48.8 x 19.7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United St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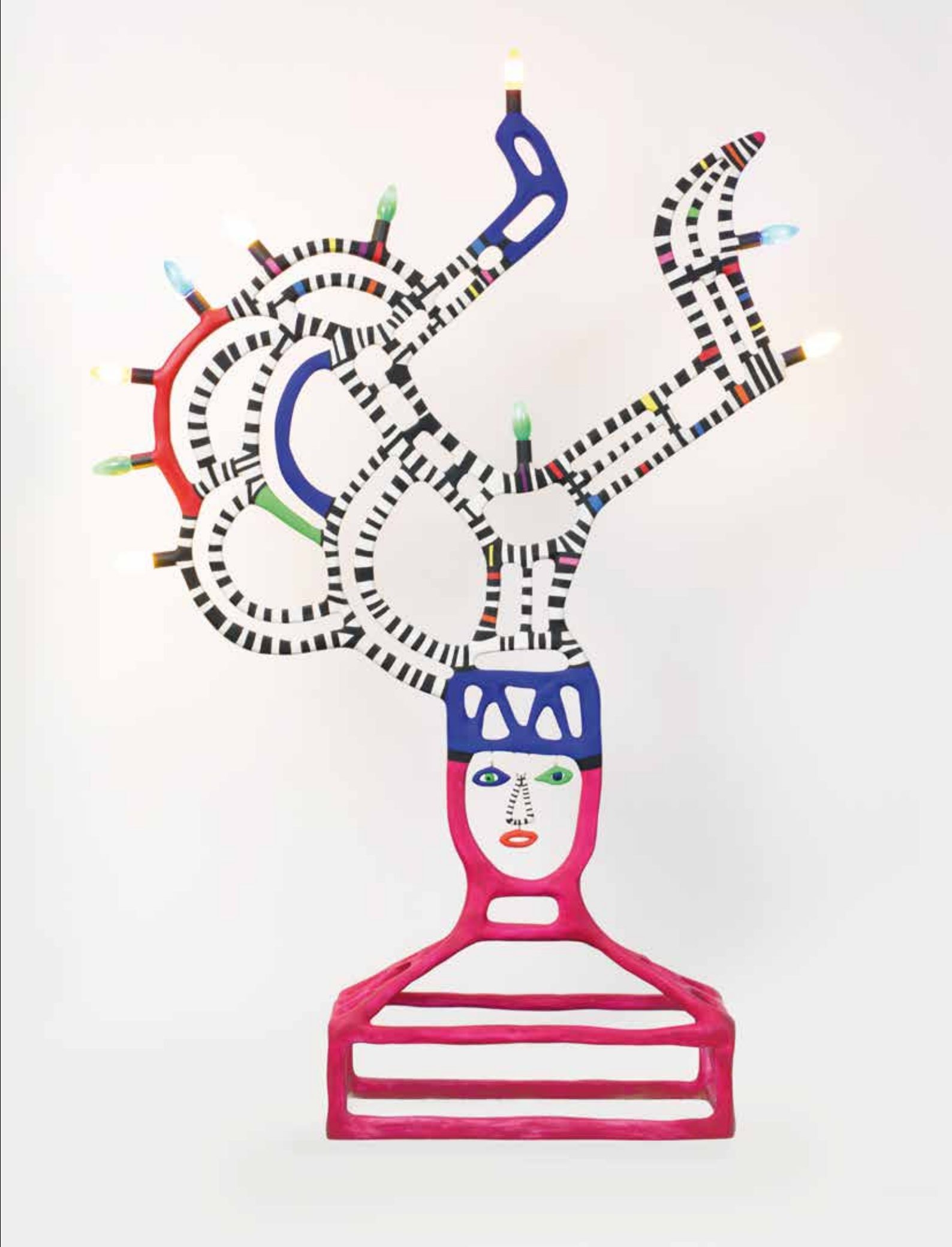
EXHIBITED

Paris, Galeries Nationales du Grand Palais, *Niki de Saint Phalle 1930-2002*, 17 September 2014 - 2 February 2015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Bilbao, Guggenheim Museum, *Niki de Saint Phalle 1930-2002*, 27 February - 7 June 2015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LITERATURE

Camille Morineau, *Niki de Saint Phalle 1930-2002*, exhibition catalogue, Paris, Grand Palais & Bilbao, Guggenheim Museum, ill. p. 299, no. 165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Back to Back Chair

1993

레진에 채색
Painted resin
Edition of 20
Signed and numbered 'Niki de Saint Phalle 12/20'
on a label on a foot

170 x 88 x 71 cm | 66.9 x 34.6 x 28 in



PROVENANCE

Galerie Edition Ars Collect, Lucerne, Switzerland
Private collection, Switzerland, *circa* 1998

EXHIBITED

Bonn, Kunst und Ausstellungshalle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Niki de Saint
Phalle*, 19 June - 1 November 1992

This art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Niki Charitable Art Foundation



Le Prophète

1990

채색된 폴리에스터에 금박
Painted polyester and gold leaf
Edition of 3
Signed and numbered 'Niki de Saint Phalle 3/3'
and stamped 'Résines R. Haligon d'Art' on the bottom
part of the inside

272 x 74 x 67 cm | 107.1 x 29.1 x 26.4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Etude Briest, Paris, 18 September 1999, lot 42
Michel Pastor collection, Monaco
Private collection

EXHIBITED

Bonn, Kunst und Ausstellungshall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iki de Saint Phalle*, June - November 1992, Pontus
Hulten (ed.), ill. p. 276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Glasgow, McLellan Galleries, January - April 1993; Paris,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June - September 1993, ill. in
colour p. 251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Caracas, Museum of Contemporary Art, *Niki de Saint Phalle*,
March - May 1996, ill. in colour no. 47 (another edition of this work)



Karel Appel pp. 12-75



pp. 18-19
Untitled, 1950



pp. 20-21
Woman and Bird on Beach, 1956



pp. 22-23
Composition, 1963



pp. 24-25
Space Animals, 1970



pp. 26-27
Blue Bird, 1971



pp. 28-29
Garçon de ferme et chien volant,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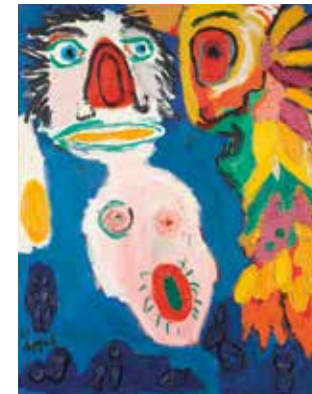
pp. 30-31
Cow, 1982



pp. 32-33
Si près et pourtant si loin, 1987



pp. 36-37
Tête d'homme, 1946



pp. 38-39
Marry Me Again (Indian Couple), 1963



pp. 46-47
Sans titre, *circa* 1980



pp. 40-41
Sans titre, 1971



pp. 48-49
Sans titre, *circa* 1980



pp. 42-43
Tête en relief, 1971



pp. 50-51
Sans titre, 1999



pp. 44-45
Grim Face, 1976



pp. 54-55
Nu abstrait, 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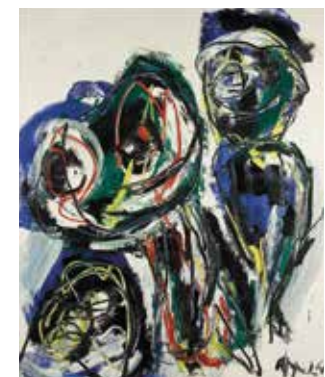
pp. 56-57
Head on the Sea, 1958



pp. 58-59
Cri Tournant, 1959



pp. 60-61
Sans titre, 1961



pp. 62-63
Little Mushroom Men, 1961



p. 64
Homme et Femme, 1968



p. 65
Untitled, 1968



pp. 66-67
Personnage, 1969



pp. 68-71
Personnages, 1970



pp. 72-73
Spacious Persons, 1972



pp. 74-75
People in the Fallen City, 1989

Niki de Saint Phalle

pp. 76-153



pp. 84-85
White Tree, 1972



pp. 86-87
Lettre à Christian, 1987



pp. 88-91
Dragon, 1979



pp. 92-93
Green Goddess, 1990



pp. 94-97
Sphinx, 1990



pp. 98-99
Chat (bleu violet), circa 1965



pp. 100-101
Chat, 1991



p. 102
Grand chameau vase, 1991



p. 103
Le Chameau, 1986



pp. 104-105
Homme lisant sur un serpent (Serpent and Daddy), 1980

Index



pp. 106-107
Obélisque serpents, 1987



pp. 108-109 Shamu -
You Are My Killer Whale
(Remembering), 1997



pp. 110-111
Oiseau amoureux
(Cerf-volant / Kite), *circa* 1988



pp. 112-113
L'Oiseau amoureux,
1990-1992



pp. 130-131
Lady with Handbag, 2000



pp. 134-135
Le Miroir (Magie du miroir),
1980



pp. 136-137
Fauteuil noir, 1980



pp. 138-139
Le Faucon bleu, 1980



pp. 116-117 La Fontaine
aux 4 Nanas, les quatre
baigneuses, 1988-1990



pp. 118-119
Running Nana, 1966



pp. 120-121
I am Upside Down, Green
(Remembering), 1997



pp. 122-123 Do You Like My
New Dress, Black
(Remembering), 1997-2000



pp. 140-141
Clarice chaise femme,
1981-1982



pp. 142-143
Charly, 1981-1982



pp. 144-145
Head, 1967-1968



pp. 146-147
La Conversation, 1991



pp. 124-125 Collaboration
(Remembering), 1998



pp. 126-127
Nana vase, 1984



p. 128
Ange vase (Black), 1993



p. 129
Ange vase (Red), 1993



pp. 148-149
Lampe angulaire, 1992



pp. 150-151
Back to Back Chair, 1993



pp. 152-153
Le Prophète, 1990

All rights reserved. Except for the purpose of review,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of the publishers.

Copyright
Published by Opera Gallery to coincide with the exhibition
To Start Again Like a Child - Karel Appel & Niki de Saint Phalle, 6 September - 7 October 2023

COORDINATION

Aur lie Heuzard
Yoonju Kim

AUTHORS

Adrianne Raphel (Art critic text)
Francesca Rovati (Appel’s chronology)
Marion Petitdidier (Saint Phalle’s chronology)

TRANSLATION

Jaehee Han, Stepping Stones

ICONOGRAPHY

Ana s Chombar

PROOFREADING

Ana s Chombar
Aur lie Heuzard
Woo Jin Kim
Sunho Lee
Francesca Rovati

DESIGN

Laurie Vidal

PRINTING

Hyunjin Creative

OPERA GALLERY

18, Eonju-ro 154 gil, Gangnam-gu, Seoul 06021 | T + 82 2 3446 0070 | seoul@operagallery.com | operagallery.com

New York Miami Bal Harbour Aspen London Madrid Paris Monaco Geneva Dubai Beirut Hong Kong Singapore Seoul

